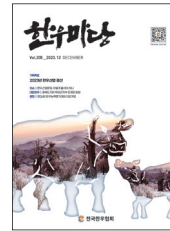


# 한우미당

vol.205

Hanwoo Journal  
2023.12



12월호 표지 이미지

## 기획특집

- 28 **2023 한우산업 결산**  
2023 한우산업을 달군 10대 뉴스

## 현장·탐방

- 38 2023 홍콩 K-Beef 한우데이 행사  
**대한한우 농가탐방**  
42 충북도지회 옥천군지부 조정운 회원  
**이슈**  
46 한우산업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54 축산업 부정적 인식 극복 세미나  
64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국회토론회  
72 제26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이모저모



## 초점·동향

- 78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안정 건의  
80 11월 한우동향분석

## 사양·컨설팅

- 88 우수한 송아지 사육을 위해  
BA플러스  
92 철저한 사양관리로 송아지 질병 최소화  
김영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동물병원 수의사  
97 추운 겨울철 한우 버짐병 발생과 대책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 문화마당

- 102 세계의 크리스마스 문화와 음식  
106 연말연시 술자리 노하우  
  
110 협회사료 안내  
112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 구제역 확산 차단!

방심은 금물! 차단방역 철저!



거품 침흘림



콧구멍 가피



혀와 잇몸 물집



발굽 궤양 가피

증상발생시 즉시신고

☎ 1588-9060  
1588-4060

구제역 백신 접종 철저

발판 소독조 설치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2023 한우산업을 달군 10대 뉴스

- #소프라이즈 #한우법 제정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향상
- #한우 수출 #전국 럽피스킨 강타
- #9,058만원 역대 최고가 한우 탄생
- #EU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 반대 #저지방 부위 소비 활성화
- #수급-가격안정 '온 힘' #저탄소 한우농가 탄생

한우산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우가격 폭락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힘겹게 새해를 열었다. 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연초부터 공동으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를 잇따라 벌이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주춤했던 홍콩 시장에 한우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다양한 소비 확대 프로모션을 연중 진행하면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는 홍콩·마카오에 이어 할랄 시장 말레이시아와 메콩국가 유통의 중심인 캄보디아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수출동력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산업 안정화를 위한 움직임도 전국에서 일어났다. 반복되는 소값 폭락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경영위기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한우협회가 추진한 한우법 제정에 여야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도매가격 지지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숨이 가쁘게 달려온 2023년을 되돌아보며 한우산업을 달궜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혜진  
조선경제신문 기자



## #1 '소프라이즈'로 한우가격 안정 도모

올해 한우 산업은 연초부터 도매가격 폭락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에 한우자조금을 재원으로 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가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농협 등을 통해 연중 실시되면서 가격 안정을 도모했다. 최대 50% 할인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은 소프라이즈 행사 일환으로 소비된 한우는 약 3,000톤 분량으로 약 1,152억 원 가량의 판매고(12월초 집계 기준)를 올렸다.





## #2

### 한우법 제정 총력

소비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과 함께 한우협회는 반복되는 불안을 견어내고 한우 산업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세계 유일 유전자 원인 한우를 보호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우협회는 1963년 제정된 축산법은 축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으로 개별 산업에 대한 육성근거가 미약하고, 여러 번 개정되긴 했지만, 규모화·전문화된 현재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법은 한우 수급조절, 경영비용 부담완화,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규모농가 지원 등이 골자다. 올해 8월에는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현장을 찾은 700여 명의 한우농가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한우법 마련을 촉구하면서 힘을 보탰다.



## #3

###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향상... 명절 판매 견인

청탁금지법에 농수산물 물품 가액이 상향되면서 선물 세트 수요가 늘어 한시름 돌릴 수 있었다. 지난 2021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2023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추석 무렵 물량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된 가운데 선물세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지지한 것. 실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은 20만~30만 원대의 한우 선물세트가 단연 인기를 끌며 축산선물세트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60%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우협회는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을 감안해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도 요구했다. 선물 가액 상향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식점의 외국산 농축산물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경제 시기에 소비 진작이라는 고무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면서 식사가액 상향을 요구했다.





## #4

세계인에  
한우 알리기  
'구슬땀'

올해는 한우 수출에도 큰 획을 그었다. 홍콩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로의 한우 수출에 성공하면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소 도축장 할랄 인증을 시작으로 5월부터 말레이시아로 한우를 수출하게 되면서 할랄 시장에 한우고기 수출이 본격화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앞으로 향후 3년간 약 2,500마리 분량의 한우가 수출길에 오를 전망이다. 캄보디아는 검역 협상 체결 8년 만에 한우가 수출길에 올랐다. 현재 일본 와규의 최대 수출 시장인 캄보디아는 시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메콩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수출에 첫발을 뗀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와 업계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우 수출이 본격화되는 내후년에는, 지난해 수출물량(44톤)의 20배 이상인 연간 1,000톤(소 3,000마리분)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전국한우협회는 홍콩시장 재공략을 위해 한우홍보관을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장을 견고히 다졌다.



## #5

## 전국 림피스킨 강타

이름도 생소한 림피스킨이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한우농장에서 확인된 데 이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는 긴급 백신 정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407만 마리의 소에 대한 일제 예방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현장업무가 모두 중지됐다.

방역지침에 따라 항체형성시기인 12월 초까지 대부분의 가축시장이 폐쇄됐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문전 거래까지 중단되면서 가축출하 및 송아지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12월 말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현장업무가 정상화됐지만 발생농가에 대한 보상과 재입식까지의 생계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았다.





## #6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강력 반대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의 움직임이 일자 전국한우협회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프랑스는 2008년, 아일랜드는 2006년 우리 정부에 자국산 소고기 수출 허용을 요청했다. 이후 총 8단계 절차 중 현재까지 7단계의 절차를 거쳤고 마지막 국회의 수입위생조건 심의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11월, EU산 소고기 수입을 위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가 다뤄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김삼주 한우협회장이 참석해 전면 반대 뜻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스럽다면서 수입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다행히도 농해수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안건은 11월 말 기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 #7

## 9,058만원 역대 최고가 한우 탄생

한 마리에 9,000만원이 넘는 한우가 탄생했다. 지난 12월 3일 치러진 제2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축이 역대 최고가인 9,058만원에 낙찰됐다. 전남 영암군 서승민 푸른농장 대표가 출품한 수상축은 출하체중 1028kg, 도체중 647kg, 등심단면적 171cm<sup>2</sup>, 등지방두께 11mm, 근내지방도 93, 육량지수 63.84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서승민 대표는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5회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대통령상 수상축은 동원홈푸드가 낙찰받았으며, 동원홈푸드는 1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축 낙찰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 #8

수급 안정과  
가격안정 위해 ‘온 힘’

올해 한우 사육 마릿수는 350만 마리가 넘어선 가운데 도축물량도 지난해보다 7만 마리 이상 늘어나면서 공급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예기됐다. 한우업계에서는 또다시 한우 파동을 우려하면서 수급 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특히 협회는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으로 한우산업의 위기를 알리고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한우 수급안정대책을 위한 지원금 230억원의 긴급투입을 이끌어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당초 92억원 가량을 지원하던 한우자조금의 정부지원금이 322억원까지 늘어나면서 2023년 한우자조금 총 예산은 625억 4,768원으로 사상 최대 예산액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쓰여지게 됐다.





## #9 저지방 부위 소비 활성화 노력



한우고기 소비 다변화를 위해 정육 소비부에 앞장서고 있는 한우협회는 올해 서양식 메뉴에 한우 정육을 활용해 맛과 풍미를 높인 음식을 개발, 한우 정육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4월엔 ‘한우 정육 부위 소비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한우 폴드비프를 활용한 다양한 양식 메뉴를 선보였다. 한우 폴드비프는 한우 사태, 앞다리, 설도 등 정육부위를 간접열로 장시간 익혀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결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선 햄버거, 피자, 파스타, 샌드위치, 타코, 토띠야, 퀘사디아, 케밥, 쌀국수, 바비큐 양념 등 한우정육이 활용된 다양한 해외 메뉴가 소개됐다. 한식에 국한된 한우정육 부위를 다양한 해외 인기 외식 메뉴에 적용하여 외식뿐만 아니라 홈파티, 캠핑, 집들이 등 가정소비까지 함께 대폭 늘려 한우정육 소비량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한우가격 안정화 이룩의 기대감을 높였다.

## #10 국내 최초로 저탄소 한우농가 탄생

저탄소  
(LOW CARBON)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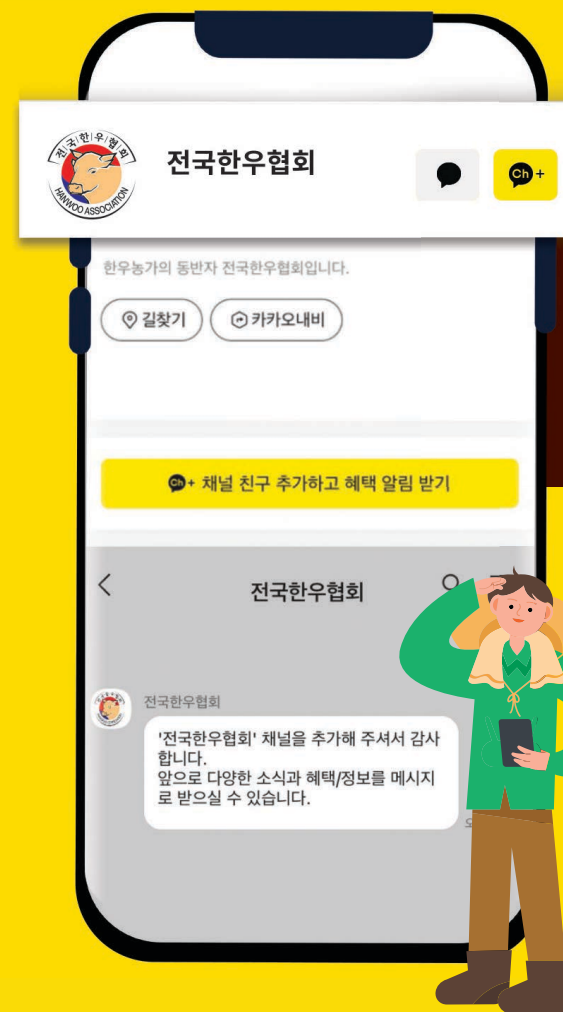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 27호가 탄생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가는 △조기 출하 △탄소 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증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 이력 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8월 전북 고창의 4개 농가가 출하한 저탄소 한우가 롯데백화점을 통해 판매되면서 첫걸음을 뗐다.

# 전국한우협회 카톡친구해요!



QR코드로 친구추가

한우산업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농가 소식지 한우마당 뉴스
- ✓ 한우산업 정책·제도·사업 동향
- ✓ 협회 활동 사항 및 행사 정보
- ✓ 기타 회원 전용 서비스 제공



STEP1

카카오톡 접속 후  
우측 상단 검색  
표시를 누른다.

STEP2

상단 검색바에  
**전국한우협회**를  
검색한다.

STEP3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끝



전국한우협회





## 2023 홍콩 K-Beef 한우데이 행사 한우고기 홍콩 소비량 확대 기대

정부·관계기관 총출동 ‘한우 수출증대 총력’  
현지 미디어·소비자·VIP 대상 타겟 마케팅

# 한우



우리 협회는 한우고기의 홍콩 수출 물량 증대를 위하여 홍보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11월 11일 협회는 현지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관광객들로 붐비는 쇼핑, 관광 명소 1881 헤리티지 야외 광장에서 2023 홍콩 K-Beef 한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홍콩 시민과 홍콩을 방문한 세계인에게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시식·문화체험·K-팝 버스킹 공연도 펼쳤다.

기념식에선 이번 홍콩한우데이 행사에서는 홍콩 한우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현지 수입업체 브라이트존(피플마켓), 엘리트(수퍼팜), 오레올(파이브그램), 풀럼(설하역), SHHK 등 5개 홍콩 현지 바이어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 한우판매점으로 시상했다.

한편, 국내 렘피스킨 발생 및 생산비 증가 등 한우산업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우협회는 이번 홍콩 한우데이 행사에서 정부·공공기관과 함께 한우고기 우수성과 이력제 등 신뢰성 높은 유통체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청신호를 켜다.

특히, 한우 생산부터 유통과정 및 등급정도 등 모든 이력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QR코드 이력제 시스템으로 다른 쇠고기 수출국과의 차별성이 부각됐다. 홍콩 현지 수입업체들은 QR코드 정보 확인에 관심을 보이며 한우고기에 큰 신뢰감을 내비쳤다.

홍콩과 검역협상으로 렘피스킨 발생지역의 한우고기도 홍콩 수출이 가능토록 합의된 만큼, 홍콩의 한우 수입업체에 철저한 유통 시스템으로 안전한 국내 식품시장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홍콩 한우 수출량을 늘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홍콩 소비자와의 만남 '한우 예찬'

지난 12월 4일 협회는 구매력 있는 홍콩 현지인 소비자를 초청하여 한우고기의 다양한 메뉴를 소개하고 식사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 한우 수입 바이어도 초청되어 현지 구매력 소비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OBP 레스토랑 최준우 헤드 셰프가 한우 고기 특징 및 손질, 구이법 등 한우 활용법 소개하고 한우를 재료로 한 홍콩 현지식과 서양식 메뉴를 선정하여 한우고기 요리를 시연했다.

### 홍콩 현지 미디어데이 개최, 홍보 극대화 도모

지난 12월 6일에는 홍콩 내 최대 규모의 한우 전문 BBQ 레스토랑인 '갈비타운'에서 홍콩 현지 매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비주얼적인 한우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홍콩에선 최초로 한우 해체 발골쇼를 진행했다. 갈비타운 매장 내 한우홍보 공간을 구성하여 한우고기 해체 및 발골, 정형을 시연했다. 한우 해체쇼에서는 BMS 9 한우 반마리를 활용하여 한우 수출규격서 기준에 따른 부위별 정형 한우 고기 특징 및 손질, 구이법 등 한우 활용법 등을 소개했다.

### 홍콩-마카오 품꾼 모니터링 한우고기 품격 전파

이밖에 협회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주홍콩한우문화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한우의 홍콩 수출 증대와 홍콩내 한국문화(한우 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마카오 우호의 밤' 및 '홍콩 국경의밤' 행사에 한우고기 홍보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행사장을 방문한 정·재계 이사와 한인사회 주요 인사, 홍콩 및 마카오 주요 내빈에게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홍콩에서 유학중인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한우유통 모니터링 요원으로 발탁했다. 홍콩 내 판매되고 있는 한우 유통 실태를 파악하여 협회로 보고하고 현지에서 한우의 우수성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삼주 회장은 "홍콩은 한우 수출이 처음 시작된 곳이자 수출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한우 세계화를 위한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쁘고 좋은날,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 한우고기를 먹는 한국의 식문화가 홍콩에서도 많이 알려져 고급 레스토랑부터 가정소비까지 폭넓은 소비가 이뤄지고 한우 수출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WOO  
KOREAN BEEF





대한한우 사료 농가를 찾아서

# 50년째 새벽 4시 기상 성실함으로 무장한 한우 명가

낙농에서 한우로 축종을 전향한 이후에도 매일 착유할 때처럼 4시면 일어난다는 사람. 20여년이 넘도록 익혀온 낙농에서의 성실함으로 한우농장을 매일 돌봤다는 조정운 조리목장 대표는 성실함과 개량을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특유의 결단력으로 한우협회 OEM사료, 대한한우사료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전체 사료를 대한한우사료로 바꿨다는 그는 그 결정을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한우사료로 바꾸고 1\*\* 출현율이 20% 이상 올라갔다고 말하는 조 대표를 만나 한우와 대한한우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정운  
대표

## 농장 경영 체크 포인트

낙농에서 한우로 전향  
매일 4시 기상 성실함



과감한 결단력으로  
전체사료 대한한우로 교체



1\*\*출현율 20%이상 늘고  
도체중 변화 '획기적'



## 낙농에서 한우로 축종전환

“1980년에 낙농으로 축산업에 처음 입문했어요. 그 당시에는 젖소 한 마리 있으며 애들 대학을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옥천에서 농사를 짓던 조 대표는 낙농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에 젖소 송아지 8마리를 사서 목장을 시작했다.

원래도 성실했던지라 목장은 금방 붙어났다.

“송아지 8마리로 시작해서 착유 30마리에 전체 100마리까지 목장을 키웠습니다. 1톤 정도 우유를 짰으니까 그때는 제법 큰 목장이었죠.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서 매일 착유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2006년 젖소를 모두 정리하고 한우로 전향을 결심했다. 노동강도가 너무 강한 낙농업을 계속하기에는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낙농을 하면서 번 돈으로 거세우 80마리를 입식했어요. 거세우를 두 번 정도 출하하고 나니까 내가 송아지를 직접 키워야 좋은 소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길로 암송아지 60마리를 입식해 일관사육을 시작했다. 번식우를 통해 개량을 하면서 좋은 송아지를 만들고 개량을 거듭했다.

“버는 돈은 다시 농장에 다 투자했다고 봐야 합니다. 출하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다시 좋은 송아지를 사고 개량을 열심히 했습니다.”

## 낙농은 몸이 고되고 한우는 마음이 고되더라

“낙농은 몸이 고되요. 착유를 새벽같이 일어나 해야 하고 매일 두 번 해야 하니 사실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15일마다

유대가 딱박딱박 나오니 월급쟁이처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한우는 노동력은 덜 든다고 해도 가격이 수시로 변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성실함으로 무장하고 매일 새벽 일어나 소를 돌보고 밥을 주고 하루종일 목장일을 하다보면 저녁이 됩니다.”

“50년째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버릇이 돼서 새벽에 일어나 소를 돌보고 밥을 주고 하루종일 목장일을 하다보면 저녁이 됩니다.”  
성실한 50년의 세월로 조리목장은 260마리 규모의 일관사육 농장으로 성장했다.

## 일관사육 전환...좋은 소 키우려면 무엇보다 '개량'이 중요

## '과감한 결단력' 지역최초 대한한우사료 전량 이용





## 9m 높이로 최적의 환기- 넓은 규모 퇴비사 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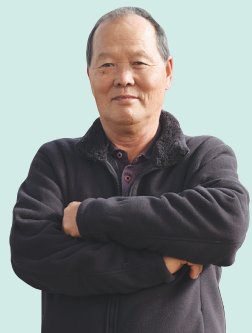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에서 시작한 젓소 목장에서 축사를 개조해 한우를 키우던 조 대표는 2019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기에 농장 이전을 결심했다.

“본래 목장 지역이 댐 주변이라서 적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을 결심하고 지금의 가평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원래 농장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농장 부지를 설정하고 3,300㎡(1,000평) 정도 늘려 축사를 지었습니다.”

축사를 지으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환기였다. 이전 목장에서 환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터라 지붕을 삼단으로 나누고 천장까지의 높이도 9m로 환기가 잘 되도록 축사를 설계했다.

대한한우사료 사용후  
성적·도체중 획기적 변화

아들은 스마트축산 골몰  
한우산업에 희망을 걸다



“퇴비장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려서 825㎡ 규모로 지었습니다. 퇴비사가 워낙 넓어서 교반도 쉽고 환기도 잘되기 때문에 퇴비 질이 좋은 편입니다. 요즘 축산 퇴비를 안 가져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퇴비 질이 좋아서 퇴비공장에서 잘 가져옵니다.”

## 대한한우 사료 10% 싸고 성적은 20% 올려

“한우협회에서 OEM 사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우농가가 믿고 써야지 누가 쓸까. 나는 처음부터 믿고 과감하게 모든 사료를 바꿨어요. 옥천에서는 제일 먼저 대한한우 사료를 전량 이용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한한우사료 출시 초기부터 전량 대한한우사료를 사용했다. 본회를 향한 철저한 신뢰는 놀라운 성적으로 화답했다.

“대한한우사료를 쓰기 전에 1\*\*이 60% 정도 나왔어요. 전체 대한한우사료로 바꾸고 나서는 80%가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는 85% 이상이 1++이었습니니다.”

성적보다 놀라운 것은 도체중의 변화였다. 470kg이었던 도체중은 대한한우사료 교체 후 480kg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520kg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원가공개를 매달 하잖아요. 거품이 빠지니까 사료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은 출하성적을 보면 더 좋아졌으니 말할 나위가 없죠. 출하성적은 개량과 사료가 다예요. 포대당 2,000~3,000원은 싸니까 10% 이상 생산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민간사료를 쓸 때보다 불편하지 않냐고들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은 매달 김종민 박사가 농장에 직접 와서 해주고 중앙회에서는 유명강사들을 초청해 한우농가들을 교육해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료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니 부담감으로 대한한우사료를 못 쓰는 농가들이 많은데 생산비에서 아끼고 출하성적으로 돈을 더 벌어 자금을 회전하면 대한한우사료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농가들이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 개량으로 키운 농장, 아들이 물려받길

“한우를 키울때는 개량이 가장 중요하죠. 고급육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어요.”

일관사육으로 전환하면서 좋은 소를 키우는 데 골몰했다는 조 대표는 개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전과는 한우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50마리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죠. 생산비는 오르고 한우 가격은 내려가

는 위기가 온다면 규모화하고 경제성을 살려 농장을 운영하면 됩니다.”

2019년 농장을 지을 때 큰 투자를 한 것도 한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축사보다 20%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전체 20억 원 넘게 투자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들어와 한우를 같이 키우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한우산업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선수를 하던 아들을 불러들여 한우를 함께 키우기 시작한지 9년여가 됐다는 조 대표는 ‘잘만 키우면 비전이 있다’는 말을 늘 아들에게 하고 있다.

“아들이 번식관리를 하는데 발정탐지기를 사용하고 컴퓨터로 전산관리를 합니다. 저는 개량에 골몰했고 아들은 농장을 스마트하게 경영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에 미래가 있냐고요. 당연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한우를 키우면 얼마든지 희망적입니다.”



농업농촌의 길 2023 심포지엄

## 한우산업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암소 사육농가 번식 의향 감소  
사육마릿수 올해보다 줄어듦  
중소 한우농가 정책적 지원 필요  
복잡한 유통단계, 소비 지수 직격탄  
비탄력적 공급, 선호부위 편차 등 문제  
소비층 차별화 정육류 판매 촉진 필요

# 韓牛

매년 한국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과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고 미래 모습과 도전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길의 올해 주제는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도전과 대응’이었다.

GS&J 인스티튜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수축산신문 등으로 구성된 농업·농촌의 길 2023 조직위원회가 최근(지난 11월 8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그랜드홀과 세계로룸에서 개최한 ‘농업·농촌의 길 2023’ 심포지엄에서 제6분과 주제는 ‘한우산업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였다. 한우는 쌀문제와 더불어 품목에서는 유일하게 분과 주제로 채택, 그 중요도를 짐작케 했다.

특히 가장 마지막 분과로 대미를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을 중심으로 한우산업의 문제와 해결방법을 고민해 본다.





한우산업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  
1



### 최근 한우산업 현황과 전망

전상곤 경상국립대 교수

한우 사육마릿수는 4차례의 사육 마릿수 고점과 이후 급감을 반복, 지난해 12월 기준 355만7,000마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사육마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353만6,000마리로 지난해보다 약 3만 마리 정도 줄어듦에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태다.

약 4차례의 파동을 겪으면서 소규모 농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중규모 이상 농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20마리 미만 규모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전체 마릿수의 약 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우 산업을 전망해 보면 송아지 출산율과 암소 도축률이 지난해 이후 번식의향 감소로 전환됐다. 송아지 출산율은 지난해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고 암소 도축률은 지난해 이후 상승세로 반전됐다. 그러나 과거의 한우 파동과 비교했을 때 자연적인 조정률이 아주 약한 편이다. 한우 마릿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는 오랜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한우 가격이 다소간 회복될 가능성 있지만 과거에는 1-2년만에 반등세였다면 최근의 양상은 추세는 바뀌지만 빠르게 안정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내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보다 약 10만~20만 마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도축물량은 올해 대비 5-1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산지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육우 마리당 조수입과 경영비를 종합하면 올해 비육우 마리당 소득은 약 50만원 이상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은 약 100만원 이상 적자가 예상돼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산업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  
2



### 유통업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우산업의 문제점

노병석 롯데마트 축산팀장

한우는 축산물의 얼굴이다. 매출보다는 축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워낙 한우 구매가 많고 2021년부터는 수입육과 돼지고기까지 물량이 늘어났다. 사실상 호황이었다. 2022년에는 엔데믹시절로 접어들면서 수입육 인플레이션이 시작, 상반기부터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모든 축종의 가격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한우는 떨어지면서 매출이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원복되고 있다. 한우를 제외한 모든 축종은 인플레이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우만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나 유통에서는 한우를 많이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가 좋지않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비동향을 볼 때 고기를 안 먹는다. 지난 6월부터 모든 축산물의 소비를 기피하는 모습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방류와 관련해 반사이익이 거의 없었다.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났다. 오히려 한우는 소비가 위축됐다. 과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일반 소비자들 오히려 채소를 먹는 전향되는 소비를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다. 한우 한 마리를 봤을 때 특수 부위인 갈비 토시, 치마 등은 20%도 안된다. 정육이 판매돼야 구이에 가격투자를 할 수 있다.

유통채널을 살펴보면 채널별로 소비 경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온라인이 강세지만 신선식품은 여전히 오프라인 구매 비율이 크다고 봐야 한다. 축산팀 매출만 놓고 보면 쿠팡과 롯데마트는 큰 차이가 없다. 전체 매출이 5배 이상 차이난데 축산팀 매출이 비슷하다는 것은 고기







저탄소인증한우

는 아직까지는 눈으로 보고 육색을 확인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우산업의 문제는 소비를 많이 해서 판매하는 것을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은 가치가 있는 상품, 스토리가 있는 상품을 산다. 한우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은 40-50대다. 어린 세대는 비싸서 잘 안 먹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MZ 세대는 셀럽이나 유튜버가 먹는 한우는 열광한다. 비근한 예로 롯데마트에서 한우 마리네이드, 채끝 최고등급을 세트로 팔았는데 판매가 잘 안됐다. 그런데 유명 유튜버인 정육왕과 함께 콘텐츠로 만들어 고정댓글로 롯데마트몰을 태그해 놔다. 관련 제품이 30분 만에 완판됐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소비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우산업의 문제점을 짚자면 '내가 팔고 싶을 때는 비싸다'는 것.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다. 복잡한 유통단계, 소비 지수 직격탄, 가용소득에 따른 소비 구조, 비탄력적 공급, 선호 부위 편차 등은 모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육류 판매 촉진이 필요하다.

질병에 따른 소비감소 대책 전무  
축종별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한우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우산업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농업농촌의 길 2023 심포지엄



토론

좌장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

토론자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윤용섭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한우국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홍정민 농수축산신문 축산부장

이병오 교수

● 오늘 토론은 한우산업의 문제를 각 전문가들이 짚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김영원 전무

● 발표에서 보면 결국은 수급과 소비가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나왔으면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한우산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고민하다 소 값을 보면 답답하다. 럼피스킨 병으로 농가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다. 럼피스킨 얘기를 잠시 하자면 방역과 백신접종 등을 발빠르게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언론에서 이슈가 됐을 때 소비자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가격 폭락이 이어질 수 있는데 농가들은 고통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농가들과 통화를 하면 마음이 안타깝다. 본론으로 돌아와 한우산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결국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한우마케팅



할랄한우만찬회

고 생각한다. 첫 번째, 축산업이 식량안보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농업농촌의 미래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소멸이 화두가 되고 있다. 농촌경제에서 한우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

2026년부터 관세제로화가 되는데 대책은 발표했는데 농가들에게 접목이 됐는지를 보면 다소 미온적이다. 대책이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유야무야 된 것이 많다. 정부에서도 발표된 대책이 어떻게 접목됐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점을 학계,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축종별로 포지션이 커지다 보니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한우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 홍정민 부장

● 최근 한우농가들의 경향을 보면 일관사육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한우 농가는 규모와 무관하게 논을 보유하는 농가들이 많다. 개별농가 입장에서는 일관사육을 해야 하지만 번식우 전문농가는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산력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우수급 문제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가 잘 돼야 하는데 국내판매 아니면 수출이 답이다. 최근 수출 관련해서 할랄인증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고 캄보디아와 몽골 등에도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수출국 다변화는 잉여분을 해결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출시됐다. 가치 소비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가교육이나 컨설팅, 소비 홍보 등을 정밀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한우에서는 냄새, 림프스킨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한 농업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 윤용섭 국장

● 경영안정 측면에서는 사료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농협에서는 한우농가들의 생산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과 올해 두 차례 사료비를 선제적 인하했다. 앞으로도 사료가격인상요인 생기면 최대한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사료구매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려고 한다. 송아지 출생마릿수도 줄고 번식농가가 우량한 암소들을 도태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소 암소 농가를 위해서 뿌리농가 2만 호를 집중육성해서 유전평가, 농가경영 안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 이연섭 과장

● 전반적인 한우 대책의 골자는 소비촉진이다.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우 물량이 많이 나온다. 5월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감소세로 가면 2026년이 돼야 300만 두가 될 것으로 본다. 가임암소가 줄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연감소도 있지만 인위적 감소가 필요하다. 암소 기반 유지를 위한 농협의 대책이 매우 반갑다.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 축산업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은?

지난 십여년 간 채식주의 단체, 동물권 운동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축산업이 기후 위기 주범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해 왔다. 이에 올바른 팩트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축산의 진실을 알리는 학자들의 모임(공동대표 장문백·조철훈)과 농장과 식탁(이사장 하광옥)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와 나눔축산운동본부(대표 안병우) 후원으로 '축산업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각 생산자·소비자단체, 학계 함께 나서야 부정적 이슈 확산 막고 올바른 팩트 확인



축사에 나선 김삼주 축단협 회장은 “일부 극성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업을 기후위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그 사이 이익을 노린 다양한 인조 모방식품은 축산물로 둔갑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그간 축산업은 기후위기 주범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속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대응으로 응답해왔는데 부정적 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축산농가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

## 축산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모태

축산분야 탄소배출량 ‘미미’...다양한 교육·홍보 필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명예교수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기상재난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 중 100여 기업이 오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9일 기준 전 세계 분야별 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가 73.2%로 가장 많았던 반면 농업분야는 18.4%였다. 그중 가축·사료는 5.8%에 불과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총 탄소 배출량은 500억톤으로 집계됐다. 그 중 중국이 가장 많은 105억톤을 생산했는데, 그마저 전력(47%)과 공업(28%)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도 국내 농업부문 탄소 배출량은 3%이며, 축산부분 비중은 1.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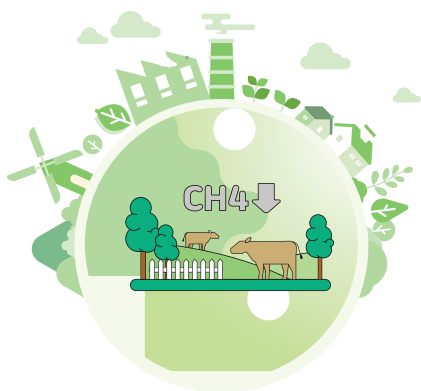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 중 가장 큰 문제는 악취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고온에 대비한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스마트 축사가 도입돼야 하며 농림부 산하 기후 적응위원회 운영 및 자문을 통해 재해보험이 지원돼야 한다.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한 친환경 사료나 지역별 양분 총량제가 필요하며 메탄 감축 기술 개발 및 저탄소 사료화 및 인증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적극 활용 및 시스템 구축 △국내 물가 영향 최소화 위한 농업 금융 및 세제 지원 △국내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공급망 인프라 확대 등이 시급하다.



발표 1

## 축산업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진실

“인간의 삶 높여준 축산업 탄소배출량 주범 아니다”

이상석 순천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우리 농업은 50년 전만 하더라도 수작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기계화가 94%, 스마트팜까지 노동력절감 등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다. 축산업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면 축산업은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하고 양질의 가축 분뇨를 양분이 부족한 토양에 환원하며 화학비료와 농약 대체 효과도 발생하는 가운데 농촌 개발의 중심축 역할도 한다.

전 세계 1일 단백질 섭취량의 33%를 축산이 담당하며 65억명 인구 중 20%가 축산분야 종사자이기도 한 데 이런 공익적 기능은 무시된 채 축산이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고 분뇨와 축산 냄새에 의한 오염 등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되고 있다.

소 등 축산에서 많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메탄인데,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메탄은 시간 대비 온도 상승 속도가 낮다. 다른 온실가스 부류들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지만 메탄은 12년 정도가 되면 자체적으로 광합성돼 분해되기 때문에 메탄이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축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부정적 인식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이미지가 만들어진 인식일 뿐이고 언론 및 소비자의 편향적인 사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와 달리 정확한 산술에 의해 측정된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10% 미만이었으며, 국가별 추정치에서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5%에 그쳤다.

축산업이 실제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산업의 지속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저감·자원화 효과 등을 내세워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인 축산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학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하며 친환경 축산을 통한 미래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발표 2

### 축산식품 건강 위해설에 대한 소고

균형있는 식사와 올바른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

허선진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적색육을 100g 먹으면 대장 직장암이 17% 증가하고 가공육을 50g 섭취하면 대장직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최대 30%까지 축산물 소비가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가공육 섭취와 질병 발생률 간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특정 저자들이 참여했고 무엇보다 1개 논문을 그대로 인용한 수치가 반영된 것이다.

연구 책임자가 800여편의 논문을 분석했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800여편의 논문 중 ‘나쁜 효과가 났다’라고 보고한 40여편의 논문만 따로 줄여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낸 것이다.

한국의 육가공품 소비량은 1년에 2.2kg, 적색육 소비량은 22kg인 반면 독일의 육가공품 소비량은 31kg, 적색육 소비량은 48kg에 달하는데 10만명당 대장암 발병은 우리가 45명인데 반해 독일은 31명에 그치고 수명은 비슷하다. 해당 보고서는 색육·육가공품과 발암성에 대한 연관성이 불분명할뿐더러 식습관, 생활습관, 인종에 대한 역학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발암물질은 축산식품 외에도 농·수산물, 주류, 발효식품 등 모든 음식에 함유되어 있으며 흡연, 음주 등 행위가 발암물질에 훨씬 많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이 높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전통음식이 짜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금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내리기 어렵고 채소 섭취, 음주, 흡연, 비만 등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체에 100% 무해한 식품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식품이든 과하게 섭취하면 위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채식주의자가 더 건강하다는 직접적인 증거 또한 없으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균형있는 식사와 올바른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 발표 3

### 축산업에 대한 오해 어떻게 해소할까?

삼인성호 축산업계 범운동 실시...도서·다큐 제작

김재민 농장과 식탁 실장



축산식품은 인류가 오랫동안 애용한 식품이며 선호하는 음식이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가축이 아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권 운동가와 같은 가축사육과 이용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했고 거짓정보로 축산업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빅카인즈를 활용해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축산업’의 연관 검색어를 검색한 결과, 54개 주요 신문, 방송사의 보도는 축산업 관련해 ‘온실가스’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배양육, 메탄가스, 기후변화 등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채식주의자로부터 시작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은 언론, 미디어, 환경운동가, 교육계, 식품기업이 차례로 동조하면서 지금의 축산업 혐오 시선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식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장형 사육이 농장형 사육으로 바뀌어야 하는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이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진실을 알리는데 누가 앞장서야 할까? 축산단체, 축산자조금, 농축협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변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성원을 상대로 기후위기 촉발설, 건강위해설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나서야 하며 그 정점에 학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관련 학계가 주축이 되어 식품관련 학회, 환경관련 학회와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억울한 축산인들, 억울한 축산학도, 억울한 축산학계, 억울한 축산기업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다큐와 도서를 제작하고 환경과 식품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세미나 개최나 책 발간 등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종합토론



진경만 서울축협 조합장

###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피해 ... 올바른 홍보 필요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주의자이다. 한우를 처음 만난 시기가 20살 때다. 부모님세대부터 무려 45년동안 한우를 사육하면서 그 어떤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피해도 많이 보았다. 탄소배출의 주범은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 아니다. 이 사실을 널리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인데 잘 참석했다는 생각이 든다. 축산업이 탄소배출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많은 홍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석 충북대학교 교수

### 농촌지역과 조화로운 축산업 정착 함께 고민

그동안 축산업이 농촌사회를 지켜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도시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농촌사회는 앞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농촌지역에 우리가 요구하는 역할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지역에 가면 농사일을 하기 보다는 자연을 접하고 휴양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역할 속에서 축산농가들이 부정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농촌사회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이 관광 축산이다. 정확한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업이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공격받는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지역에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공간으로서 축산업이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 적극적으로 오해 반박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동안 축산물에는 탄소배출량·동물복지 논란 등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받아 왔다. 축산업계에서 가만히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오해에 반박해야 한다.

생산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하고, 함께 공적 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즉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식생활 관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식 진영에서 공격을 할 때마다 균형있는 식생활을 강조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축산자조금도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악조건을 역으로 기회로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안되는 축산업의 탄소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배출량을 우리가 더 줄여버려 내세우는 것이다. 한돈의 경우 시설 개선을 통해 선진국 대비 부족한 생산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축산업을 장려하고 축산업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대체 식품을 육성하고 동물복지 한다면서 반려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예산이 다른 분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유제웅 팜스토리한농 부장

###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 보여야

육가공하고 유통하는 쪽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축산물 자체가 어떤 기후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라고 부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평균적으로 70세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나라 또한 약 80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과학적인 발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질의 단백질을 계속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간의 풍족한 삶과 기후위기에 대한 주범이라는 두가지 경계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업계가 탄소배출의 주범이 아니더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명백하게 공론화시키고 과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

또한 축산관련 관계자들이 폐수처리, 자원 재순환 등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축산업에 대한 오인을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가축질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GPS 장착으로 방역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승합·화물차량
-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 신청
- 시행**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23.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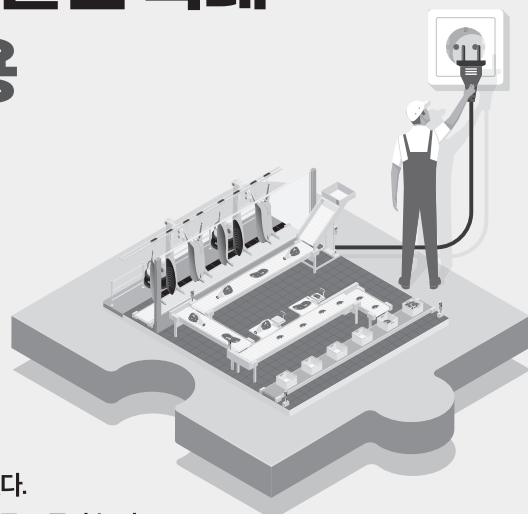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10.19.~)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적용

##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간 출입 정보가 없는 축산차량 대상 전화조사, 상시점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가 내년 말 도  
래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도축업계와 생산자 단  
체가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홍문표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와 한국농  
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선 2014년 한·영연방 FTA에 대한 축산업 피해 보  
완대책으로 추진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한 확대 및 연장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된다면 도축 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증가로  
직결될 것이며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산 축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처질 것이 자명  
하다”며 하루빨리 축산농가와 도축업계의 우려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한 축산업 피해 보완대책으로 전국 도축장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20% 할인 받고 있다. 도축장들은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대신 도축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인상 시 인상 폭을 최소화해왔다. 하지만 전기요금 할인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

에 따라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  
황에 처했다는 게 도  
축장들의 입장이다.



### # 주제발표

###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을 위한 논의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

### 영연방 FTA 축산 피해대책 일환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현재 도축장은 영연방 FTA  
피해대책 일환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20% 할인을 적용  
받고 있으며, 내년 말 특례할  
인 일몰이 도래한 상황이다.

도축장은 축산물 유통의 첫 관문이자 축산물의  
안전성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며 민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도계장 포함 132개  
도축장·도계장에 886명의 공무원이 파견돼 있  
다. 이들이 하는 일은 축산물의 안전관리이다.  
이들이 도축장에 상주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따라  
서 도축장이 무너지면 축산물의 안전 또한 담보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축장의 경영과 산업 안  
정을 위해서는 도축장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확대 유지돼야 한다. 도축장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22.4%, 최저임금  
72.4%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  
를 유지하고 있다. 도축업계의 경영 부담이 심각  
한 수준임에도 전기요금 특례할인 등의 효과로  
이를 버텨내고 있다. 따라서 특례 연장 및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도축장

내년말 특례할인 종료  
도축수수료 인상 당연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

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20% 감면을 받고 있는데 도  
축장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  
하는 미곡처리장(RPC)의 경

우에는 일몰기한 없이 50% 감면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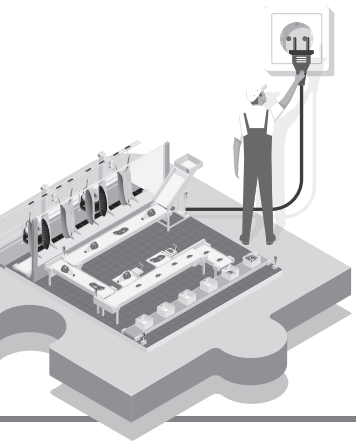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1  
차적으로 도축 후 보관 과정까지는 농가 소유  
의 자산이며 이때 행해지는 비용 부분도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프로세스는 미곡처  
리장과 동일하다. 동일한 프로세스에 필요한 전  
력사용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에 따라 감면 혜택  
이 이뤄져야 하는 게 합당하다. 도축장만 배제  
돼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감면 혜택의 수혜자는 농가와 소비  
자이다. 따라서 공공적인 관점에서 특례할인 확  
대 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  
작이다. 시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움직이지 않  
는다. 관세를 낮추는 효과는 10년·20년 후에 나  
타나기 때문에 이제야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보상, 대  
책이 필요하다.



## # 종합토론



●● <좌장>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라 생각한다.

●●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 피해대책 발표 이후 보완대책으로 국회 여·야·정 협의체(2014년 11월)에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도축장 전기요금을 10년간 20%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할인대상은 도축공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설비 및 사무실, 구내식당, 냉동·냉장 설비, 오폐수 정화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도축장(2023년 6월 한전 기준) 147개소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규모는 총 1434억6,000여만원으로 연간 평균 179억3,000만원의 할인 특례가 적용됐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통해 도축수수

료 인상 최소화 및 농가 환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가격안정 등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일몰 시에 도축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는 특례 연장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특례 연장 또는 확대를 논의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전화하는 것과 인상분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전과 산자부, 세 번째는 재정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어느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

●●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 축산업계의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전기사용계약 체결 시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 종별을 구분하게 되는데,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으로 도축업은 제조업으로 분류 되어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도축업을 대상으로 한 농사용 전력 적용은 종별 요금체계에 맞지 않고, 다른 전기 사용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된다. 또 기한이 도래한 특례에 대해서는 일몰이 기본 원칙이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부합됐다 하더라도 한전의 경영상황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전은 전기를 팔면 반드시 손해를 입는 구조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으로써 국민의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를 한 결과 재무상황이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됐다. 원가와 차이를 벌리는 구조를 한전이 감당할 수 있을지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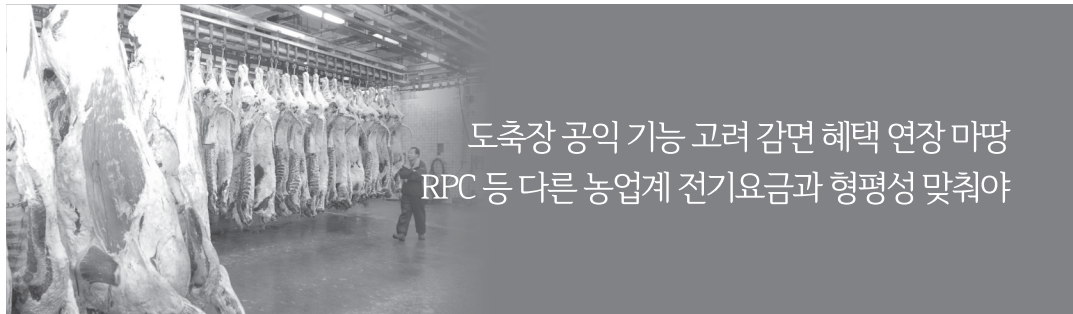
●●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 전기요금 연장 건에 대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서 적자를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도축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축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부에서 도축장마다 검사관이 상주하면서 축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과 방역 검사 인력 등을 포함하면 관에서만 10명의 인력이 상주한다. 그만큼 중요한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도축장을 크게 나누면 농협, 대기업, 민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민간 쪽은 자본력이 약하고 농협 쪽은 지원되는 형태가 다르므로 유리하

고 대기업은 자본력이 좋다. 민간은 사실 임계점에 와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반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제한 효과도 있다. 공공기관도 아닌데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관계부처나 한전이 국민이 원하는 것에 따라와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 >> 최근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의 일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도축업계에서는 이 할인제도 종료시 업계 및 축산농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특례할인제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결국 타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적용대상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일몰이 원칙이다. 현재 일몰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일몰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 신재생 에너지 특례할인도 일







물이 예정되어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한전의 재정 상황은 단순 적자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 할인제도 연장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 특례 할인은 도축업계 뿐 아니라 농가도 함께 힘을 보태 투쟁해 얻어낸 결과다. 당시 도축 수수료 할인을 전제로 인하가 이뤄졌다. 당시 도축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이뤄진 특례를 위해 실무 회의를 여러차례 한 바 있다. 당시 도축비 중 전력비율은 5.25%(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로 할인 특례에 따라 도축수수료를 1.05%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현재까지 인하된 전기요금의 혜택이 도축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할인 영향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단체는 특례할인 확대 및 연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한편, 향후 특례에 따른 도축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례 혜택이 도축장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만큼, 생산농가에도 인하 영향이 미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축장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이므로 도축 품질 향상 등 서비스 개선에 함께 노력을 기울여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축산물 도매분사 국장 >> 농협 도축장을 예로 들면 농협은 2018년부터 도축수수료를 동결하고 있다. 이 시기에 새롭게 건립된 도축장들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들여 시설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용의 도축수수료를 받고 있다. 투자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매가 이뤄지지 않는 일반 도축장은 도축수수료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 및 제반 비용 등의 증가로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특례

가 일몰되면 경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도축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식육도매시장의 경우 부분을 동경都에서 운영하고 폐수처리시설도 3,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 안전성과 폐수처리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도축업계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미국산, 2028년 호주산 관세 폐지가 예정돼있다. 수입 축산물의 가격이 10% 이상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특례는 반드시 산업적인 보호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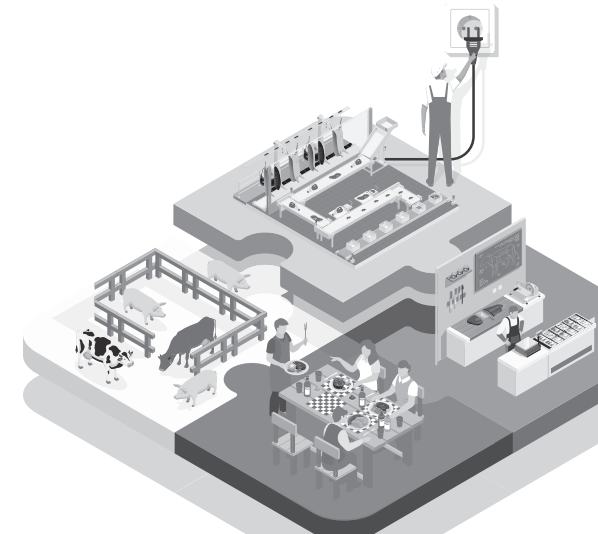
●●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한전의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례를 논의하기에 앞서 도축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축장을 거쳐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필히 거쳐야 하는 곳이다.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축산농가의 경영은 물론이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전의 역할처럼 도축장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세를 올리듯이 도축장도 전기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축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정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부문은 인상하기로 했다. 도축장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일몰은

연장되어야 하고, 농사용 전기인지 산업용 전기인지 적용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도축업의 분류가 제조업으로 돼있어서 제약이 많은데 제조업이라 해도 일반 가공산업과는 다르다. 도축업은 1차산업과 직접 연결돼있다. 현재 일몰없이 특례가 진행되고 있는 천일염, RPC 등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

또 특례가 어렵다면 설비 개선비 지원 등의 차선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력을 높여 공급가를 낮추는 방법,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 등 직접적인 할인 특례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처럼 도축장의 전기설비를 고도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할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모든 축산물 가공유통의 중심에 도축장이 있다. 특히 축산물 유통 트렌드가 부분육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부분육 가공 부분은 현행제도에서도 배제되어있다. 추후 할인 특례를 논의할 때는 적용범위 확대까지도 고려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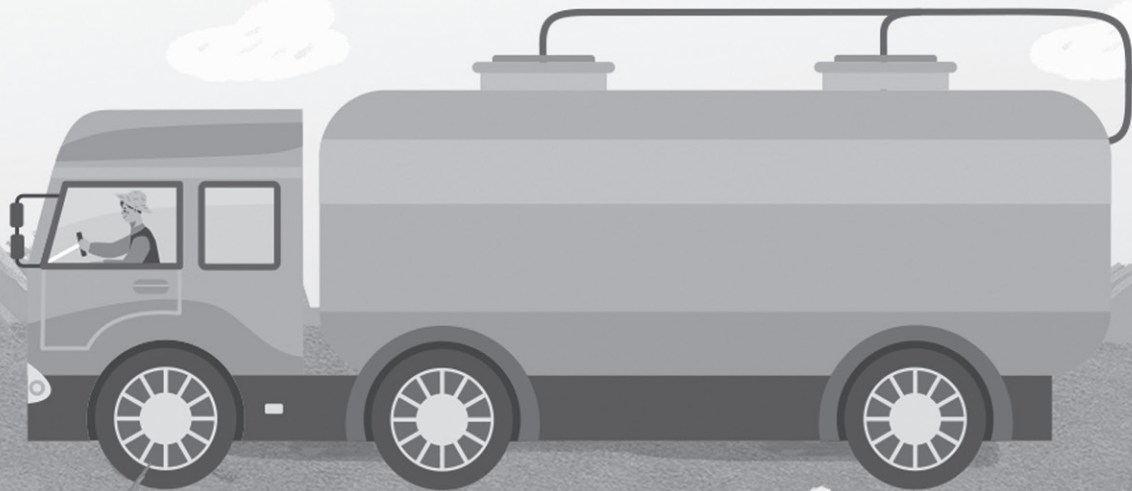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의 다른 시·도 이동이 금지됩니다.

**기 간** 2023.10.1. ~ 2024.2.29.(5개월)

**대 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 제외

**제 한**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른 시·도로 이동 금지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철저한 사전검사 후 제한적 이동 허용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가축방역부서)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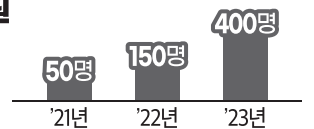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대행등록기관

## 일 잘하는 근로자 장기체류 비자 변경 가능



비숙련 외국인근로자 E-9 비자에서 E-74(장기취업비자)로 변경하면  
출국만기가 없어지고 계속 농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축어업에는 연간 쿼터제를 실시하여 점수제 선발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근로자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변경가능 인원



본 비자코리야는 2019년부터 전국의 농장(양돈, 양계, 작물)의  
많은 성실한 근로자를 출입국행정정처를 통하여 비자변경 질  
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약 300여 농장 출입국 절차 대행 진행



### E-9에서 E-74으로 비자변경시 장점

- ✓ 농장주는 성실한 근로자를 출국만기 걱정없이 고용 가능
- ✓ 근로자는 만기 걱정없이 국내에서 평생 취업이 가능
- ✓ 근로자는 부인과 아이들을 초청하여 안정적인 체류 가능
- ✓ 비자 변경후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이직 불가
- ✓ 한 농장에서 2명까지 가능
- ✓ 한국인 고용보험가입자 인원의 30%까지 변경 가능

본 비자코리야는 출입국행정대행사무소로 전국의 농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농장주와 근로자의 불편없는 행정절차 대행 경험으로 많은 농장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행정대행 상담

**비자코리야**

C.P.010-3324-1347 E.M. kty8018@hanmail.net





## 개량의 힘, 새로운 역사! 2023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지난 12월 4~6일까지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제2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개최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 한종협)이 '개량의 힘, 새로운 역사!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 확산에 따라 대회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리게 되었으며 1993년 제1회 '한우고기평가회'로 시작한 이해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대회였다.

이번에 개최된 제2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는 총 268두가 출품하여 대회 심사기준에 의해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총 1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268두 출품 '열띤 경쟁' 13명 선정  
경매가 역대 최고 9,058만원 기록

대통령상 수상축 도체중 647kg  
등심단면적 171cm<sup>2</sup>, 1\*\*A 성적



### 서승민 푸른농장 대표, 영예의 '대통령상' 2012년에 이어 최초로 2회 수상 기쁨

서승민 푸른농장 대표의 출품우가 '제2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경매가를 경신했다.

서 대표는 2012년에도 대통령상을 수상해 최초로 2회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매가도 역대 최고인 kg당 14만 원, 총 9,058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낙찰됐다.

대통령상 수상축은 도체중 647kg, 등심단면적 171cm<sup>2</sup>, 1\*\*A의 성적으로 럼피스킨으로 인해

두 번이나 대회가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다는 현장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승민 대표는 총 6번의 수상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서 대표는 "앞으로 푸른농장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자만하지 않고 다른 농가들과 상생하며 동반 성장을 하는 데 의미를 두겠다"면서 "여러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비결에 대해 "꾸준한 개량, 꼼꼼한 사양관리가 큰 도움이 됐다"며 "40년 전 '부지런한 농부가 재래종 돼지로 100근 만들기는 어렵지만 게으른 농부가 신품종 돼지로 100근 만들기는 누워서 떡먹기'라는 글귀를 보고 종자개량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종자개량에 대한 사명감을 나타냈다.

### 대통령상 입상자 수상 경력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년도	대회	훈격
2012	15회	대통령상
2014	17회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2019	22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	23회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
2022	25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
2023	26회	대통령상



## 총 268두 출품…심사기준 맞춰 열띤 경쟁 한우개량 통한 경쟁력 강화 중요성 확인



김영원 전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체 268마리가 출품했다. 행사에는 이재운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이동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하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원장, 임관빈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협의회 회장, 우영목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협의회 전무, 김형규 농협음성공판장 중도매인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운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 한우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개량을 위해 묵묵히 힘써온 모든 한우농가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는 한우농가에게 큰 희망과 한우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전무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대회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중도매인 여러분들 덕분이다”면서 “이 자리가 한우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 동원홈푸드, 수상축 낙찰받아 ‘13년 연속’ 1kg당 14만 원…한우 평균경매가 8배 이상

(주)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축산 도매온라인몰 '금천미트'가 13년 연속으로 대통령상 한우를 낙찰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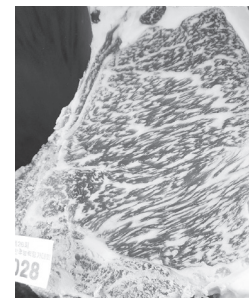
동원홈푸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고 등급의 한우를 대회 사상 최고가인 9,058만 원에 낙찰받았다. 거래가는 1kg당 14만 원으로 올해 거래된 전체 한우 평균 경매가 대비 8배 이상 비싸다.

이날 대통령상 수상축을 낙찰받은 동원홈푸드는 관계자는 “등심단면적이나 근내 지방도 모두 완벽한 소였기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았다”며 “선홍빛의 육색과 마블링, 체형 등 한우 성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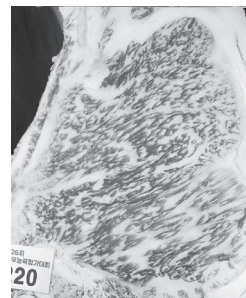
### 한우협회 OEM사료 ‘대한한우’ 사용 박시덕 씨 농촌진흥청장상 받아 ‘이목’

대한한우 사료를 급이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박시덕 씨가 ‘제2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4등에 해당하는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 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 생체중 1,239kg을 달성하고 도체중 824kg의 슈퍼한우를 출하한 박시덕 씨는 자타공인 육종대가로 전체 600마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번식우 250마리에 대한한우사료를 급이하고 있다.



대통령상 수상축 육질



국무총리상 수상축 육질



비록 출품우는 아니지만 선두 개량농가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박시덕 씨가 대한한우사료를 급이하고 있다는 것에 한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 씨는 “대한한우사료가 일반사료보다 20% 이상 저렴한 반면 품질이 우수하다”며 “주변의 농가들에게도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번식우에 적합하다고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쟁쟁한 한우개량 농가 ‘한자리에’

대통령상 외에도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을 비롯한 쟁쟁한 수상자들이 이어졌다.

수상 명단은 △국무총리상 이진영(강원 홍천

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나형규(전남 함평군) △농촌진흥청장상 박시덕(강원 홍천군) △농협중앙회장상 이종국(충남 부여군) △축산물품질평가원위원장상 이명호(경북 경주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상 김흥기(충북 괴산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 김정란(전남 화순군) △전국한우협회장상 신승욱(경북 경주시)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 이규천(울산 울주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협의회장상 정운섭(전북 군산시), 신승일(전북 익산시), 백덕환(충남 부여군) 등이다.



입상내역

훈 격	수상자	지역		도체중 (kg)	등심단면적 (cm²)	육량 지수	최종 등급	경력단가 (원/kg)	최종가격 (천원)
대통령	서승민	전남	영암군	647	171	63.84	1**A	140,000	90,580,000
국무총리	이진영	강원	홍천군	527	146	64.34	1**A	80,164	42,246,4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형규	전남	함평군	606	150	63.54	1**A	42,223	25,587,138
농촌진흥청장	박시덕	강원	홍천군	546	135	64.88	1**A	39,999	21,839,454
농협중앙회장	이종국	충남	부여군	585	148	63.69	1**A	35,555	20,799,675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이명호	경북	경주시	654	145	63.59	1**A	35,988	23,536,152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김흥기	충북	괴산군	593	146	62.86	1**A	36,419	21,596,467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정란	전남	화순군	598	143	63.30	1**A	36,420	21,779,160
전국한우협회장	신승옥	경북	경주시	554	141	63.26	1**A	39,566	21,919,564
한국종축개량협회장	이규천	울산	울주군	599	135	62.70	1**A	35,988	21,556,812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장	정윤섭	전북	군산시	471	141	65.47	1**A	35,029	16,498,659
	신승일	전북	익산시	595	136	62.58	1**A	33,988	20,222,860
	백덕환	충남	부여군	530	138	62.92	1**A	32,899	17,436,470

출품우 기본통계 (268두)

구분	출하체중 (kg)	도체중 (kg)	등심 단면적 (cm²)	등지방 두께 (mm)	근내 지방도	육량 지수
최대	1,124	701	171	33	93	65.47
최소	650	401	73	4	41	57.76
평균	889.4	546	115	13	-	61.88

출품우 등급별 분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1**등급	73	115	23	211
	[27.2]	[42.9]	[8.6]	[78.7]
1*등급	13	30	7	50
	[4.9]	[11.2]	[2.6]	[18.7]
1등급	2	4	1	7
	[0.7]	[1.5]	[0.4]	[2.6]
계	88	149	31	268
	[32.8]	[55.6]	[11.6]	[100.0]



진심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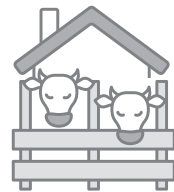
기쁘고 좋은날, 특별한 날엔 역시 한우



깊이가 다른 품미로 느껴지는 한우의 품격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을 잇는 문화유산



#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안정 건의



## 1 가축시장 현황

◎ 현황 : 전국 84개 축협에서 89개 시장 운영

(단위:개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축협	7	9	7	9	7	15	14	14	2	84
시장	7	9	8	10	9	15	14	15	2	89

◎ 거래 두수 : '22년 기준 473천두

(단위:천두)

구분	송아지			큰소	합계
	4~6개월	7~9개월	10~14개월		
암	0.7[0.3]	47[15]	30[6]	49[13]	126.7[34.3]
수	5[1]	224[70]	30[5]	87[23]	346[99]
합계	5.7[1.3]	271[85]	60[11]	136[36]	472.7[133.3]

(※) ( )는 10월~12월(3개월)까지 가축시장을 통한 거래두수임(연간 대비 28.1% 차지)

## 2 가축시장 폐쇄 문제점

◎ 한우농가 경영상 어려움 가중

- 가축시장 폐쇄 및 문전거래 중단으로 농가 필요자금 확보 어려움
- 사료, 건초 외상 구입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 가축시장 출장 지연에 따른 사육환경 악화 등

◎ 가축시장 재 개장 시 가격폭락의 문제점

- 재 개장 시 홍수출하에 따른 경매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 감소

◎ 송아지 가격 하락 문제점

-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송아지 시기 적기 거세 필요.
- 가축시장 출장 지연에 따른 거세시기 지연으로 거래가격 하락 문제점 발생

## 3 건의사항

1) 렘피스킨(LSD) 미발생 시·군 가축시장 개장 허용

◎ 주요 조치계획

- ① (대상 牛) 렘피스킨(LSD) 백신접종 완료 개체만 출장 허용
- ② (임상검사) 조합에서 출장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피부결절, 고온 등) 실시
- ③ (소독실시) 가축 운송차량은 농가 소독 후 가축시장으로 이동하고, 가축시장에서 재차 소독 실시
- ④ (지역제한) 가축시장 개설 지역에 한정해서 출장과 구입 허용

➔ 가축시장 개설 이외지역으로 반출을 금지하여 질병 확산 방지

렘피스킨(LSD) 항체가 형성되는 12월초에는 전국 가축시장  
개장 허용(주요 조치사항은 추후 보완)

2) 지역축협 생축장 활용 송아지입식 및 비육

◎ 렘피스킨(LSD) 발생에 따른 거래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송아지를 지역축협 생축장 (위탁사육 포함)에서 구입 및 비육 추진

➔ 생축장(75개조합) 보유 이외의 조합은 위탁사육을 통한 비육 추진

3) 경영안정 등 지원 건의

◎ 사육밀도 완화 및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건의

- 농가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 (현행) 1.8% → (건의) 0%
- 소규모 한우 농가(50마리 미만) 대상 축산경영자금(사료비 등)을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지원(금리 2.5%, 1년 이내 상환)

◎ 번식·일관사육농가 등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유예건의

➔ (건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유예건의

참고 : 농협 한우농가 지원(안)

- 지원금액 : 무이자자금 1,000억원 <가축시장 거래두수 적용 차등 지원>
- 지원용도 : 사료 외상구매 이자, 생활자금 대출 이자, 출장 선금금 등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에 활용





# 한우 동향 분석 2023. 11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한우사육】 2023년 10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 전월 대비 1.82% 감소
- 가임암소 전년 동월 대비 0.06% 증가, 전월 대비 0.24% 증가
- 연령별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9.21% 감소, 1세~2세 2.00% 증가, 2세 이상 0.24% 증가



## 【등급판정】 10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 77.3%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1\*\*등급 : 27.7%, 1\*등급 : 25.8%, 1등급 : 23.8%



## 【도매 및 산지가격】 10월 한우 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큰 소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송아지(6~7개월령)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6.0% 하락, 전월 대비 5.4% 상승(수소는 22.2% 하락, 10.8% 하락)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2.4% 하락, 전월 대비 5.3% 하락(수송아지는 5.9% 하락, 5.8% 하락)



##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정액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10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1.54% 증가
- 10월 정액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11.22% 감소



## 【쇠고기 수입】 10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 전월 대비 25.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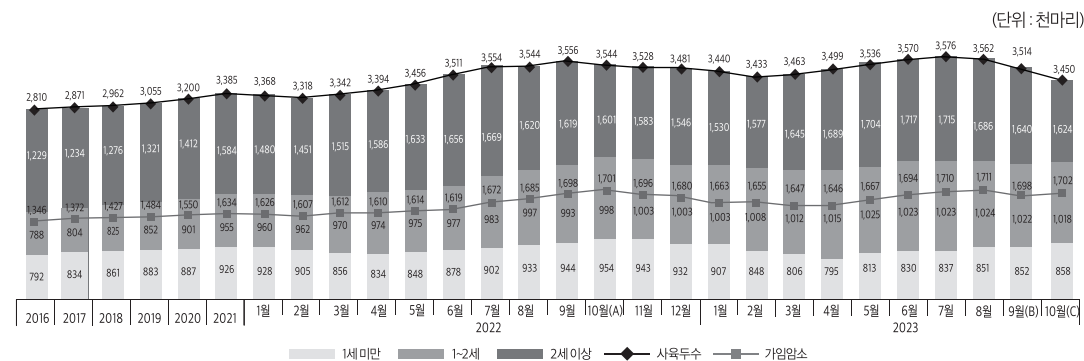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 25.7% 증가, 냉장육 23.1% 증가



## 1. 한우 사육 동향

◎ 2023년 10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농가 자율 감축을 위한 노력 필요

- 한우 사육마릿수는 345만 마리로 전년 동월(354만 4천 마리) 대비 2.65%(9만 4천 마리) 감소, 전월(351만 4천 마리) 대비 1.82%(6만 4천 마리) 감소
- 가임암소는 170만 2천 마리로 전년 동월(170만 1천 마리) 대비 0.06%(1만 마리) 증가, 전월(169만 8천 마리) 대비 0.24%(4만 마리) 증가
- 연령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9.21%(8만 7천 마리) 감소, 1~2세는 2.00%(2만 마리) 증가, 2세 이상은 1.44%(2만 3천 마리) 증가
- 사육 농장수는 83,818농장으로 전년 동월(88,137농장) 대비 4.90%(4,319농장) 감소, 전월(84,097농장) 대비 0.33%(279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마릿수는 41.8마리로 전년 동월(40.2마리) 대비 3.98%(1.6마리) 증가, 전월(41.8마리)과 동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그림 1】 한우 사육 두수 현황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마리, %, 마리)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89,423	3,312	1,578	88.2	873	931	1,508	36.9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8월	88,633	3,544	1,685	46.8	933	991	1,620	40.0
	9월	88,471	3,556	1,698	41.2	944	993	1,619	40.2
	10월(A)	88,137	3,544	1,701	34.1	945	998	1,601	40.2
	11월	87,784	3,528	1,696	32.4	943	1,003	1,583	40.2
	12월	87,470	3,481	1,680	31.7	932	1,003	1,546	39.8
2023	1월	87,160	3,440	1,663	57.4	907	1,003	1,530	39.5
	2월	86,861	3,433	1,655	67.4	848	1,008	1,577	39.5
	3월	86,524	3,463	1,647	115.8	806	1,012	1,645	40.0
	4월	86,145	3,499	1,646	125.7	795	1,015	1,689	40.5
	5월	85,616	3,536	1,667	116.8	813	1,020	1,704	41.3
	6월	85,261	3,570	1,694	93.8	830	1,023	1,717	41.9
	7월	84,897	3,576	1,710	82	837	1,023	1,715	42.1
	8월	84,504	3,562	1,711	73.9	851	1,024	1,686	42.2
	9월(B)	84,097	3,514	1,698	-	852	1,022	1,640	41.8
	10월(C)	83,818	3,450	1,702	-	858	1,018	1,624	41.8
증감률	전년동월(C/A)	△4.90	△2.65	0.06	-	△9.21	2.00	1.44	3.98
	전월(C/B)	△0.33	△1.82	0.24	-	0.70	△0.39	△0.98	0.00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2023년 10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10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64,262마리로 전년 동월(62,964마리) 대비 2.1%(1,298마리) 증가, 전월(109,316마리) 대비 41.2%(45,054마리)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45.3%, 수소 0.4%, 거세우 54.3%
  - \* 전월대비 : 암소 5.4%p↓, 수소 0.4%p↓, 거세우 5.7%p↑, 거세율 0.9%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 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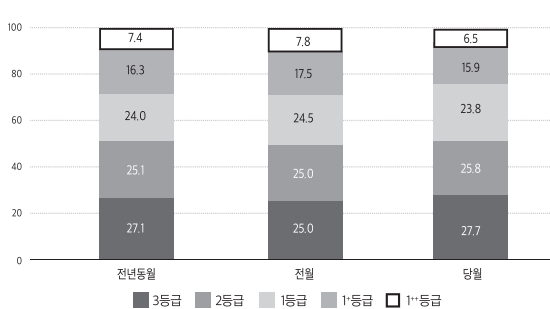
(단위 : 마리,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2.1.~10월)	700,096	332,352	5,185	362,559	98.5
	100.0	47.5	0.7	51.8	
금년누계 (’23.1.~10월)	780,779	399,423	4,389	376,967	98.8
	100.0	51.2	0.6	48.3	
전년동월 (’22.10월)	62,964	29,099	322	33,543	99.0
	100.0	46.2	0.5	53.3	
전월 (’23.9월)	109,316	55,397	839	53,080	98.4
	100.0	50.7	0.8	48.6	
당월 (’23.10월)	64,262	29,108	262	34,892	99.3
	100.0	45.3	0.4	54.3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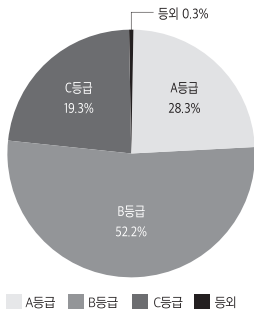
◎ 10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7.3%, 전년 동월 대비 1.2%p 증가, 전월 대비 2.9%p 증가

- 10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7.7%, 1\*등급 25.8%, 1등급 23.8%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4.4%) 대비 2.9%p↑, 1\*\*등급 2.7p↑, 1\*등급 0.8%p↑, 1등급 0.7%p↓
  - 전년 동월(76.1%)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6%p↑, 1\*등급 0.7%p↑, 1등급은 0.2%p↓
  - 전년 누계(75.1%)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8%p↓, 1\*\*등급은 0.4%p↓, 1\*등급 0.7%p↓, 1등급은 0.3%p↑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2	869,147	25.6	25.3	24.3	75.2	17.0	7.6	27.0	52.0	20.7	0.2
2022	10월(A)	62,964	27.1	25.1	24.0	76.1	16.3	7.4	28.0	52.1	19.6
	1~10월(B)	700,096	25.3	25.4	24.4	75.1	17.1	7.6	26.9	52.1	20.7
2023	'22.9월(C)	109,316	25.0	25.0	24.5	74.4	17.5	7.8	30.3	51.9	17.5
	10월(D)	64,262	27.7	25.8	23.8	77.3	15.9	6.5	28.3	52.2	19.3
	1~10월(E)	780,779	24.9	24.7	24.7	74.3	17.3	8.1	28.0	51.8	19.9
전월대비(D-C)	△45,054	2.7	0.8	△0.7	2.9	△1.6	△1.3	△2.0	0.3	1.8	0.0
전년동월대비(D-A)	1,298	0.6	0.7	△0.2	1.2	△0.4	△0.9	0.3	0.1	△0.3	0.1
전년누계대비(E-B)	80,683	△0.4	△0.7	0.3	△0.8	0.2	0.5	1.1	△0.3	△0.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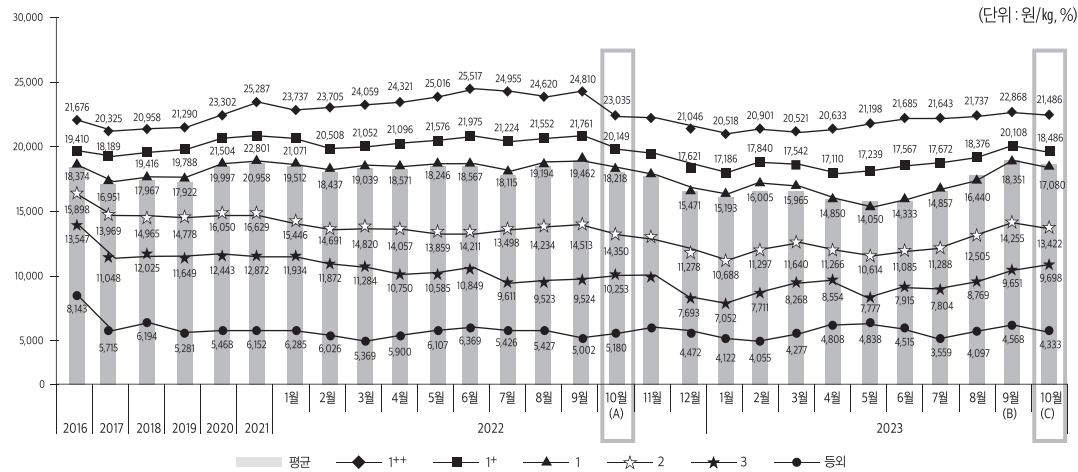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2023년 10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 10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7,080원/kg)은 전년 동월(18,218원/kg) 대비 6.2%(1,138원/kg) 하락, 전월(18,351원/kg) 대비 6.9%(1,271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7,866원/kg)은 전년 동월(18,898원/kg) 대비 5.5%(1,032원/kg) 하락, 전월(18,656원/kg) 대비 4.2%(790원/kg) 하락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3]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 10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송아지(6~7개월령)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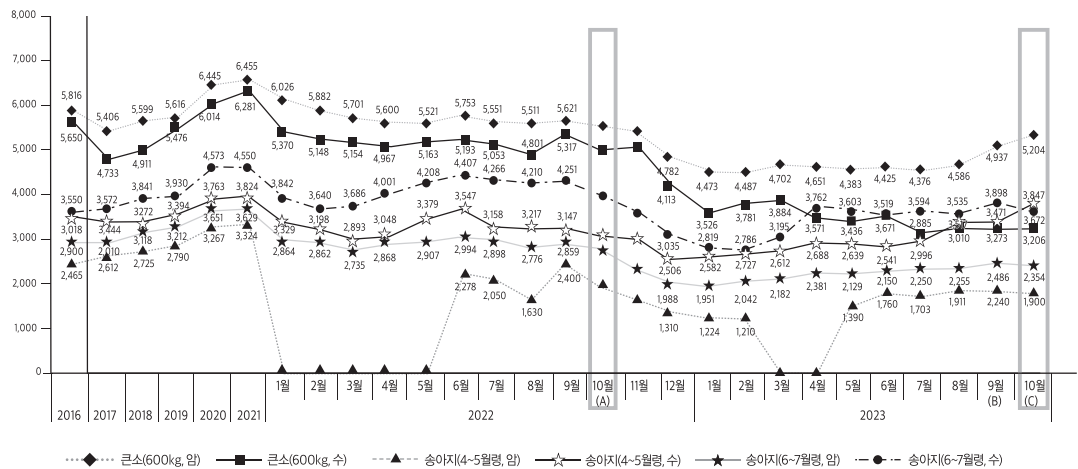
- 10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5,204천원으로 전년 동월(5,538천원) 대비 6.0%(334천원) 하락, 전월(4,937천원) 대비 5.4%(267천원) 상승  
- 수소의 경우 3,847천원으로 전년 동월(4,944천원) 대비 22.2%(1,097천원) 하락, 전월(3,471천원) 대비 10.8%(376천원) 상승
- 10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354천원으로 전년 동월(2,686천원) 대비 12.4%(332천원) 하락, 전월(2,486천원) 대비 5.3%(132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3,672천원으로 전년 동월(3,904천원) 대비 5.9%(232천원) 하락, 전월(3,898천원) 대비 5.8%(226천원) 하락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25,287	22,801	20,958	16,629	12,872	6,152	21,155
2022	10월(A)	23,035	20,149	18,218	14,350	10,253	5,180	18,898
2023	9월(B)	22,868	20,108	18,351	14,255	9,651	4,568	18,656
	10월(C)	21,468	18,486	17,080	13,422	9,698	4,333	17,866
증감율	전년동월(C/A)	△6.8	△8.3	△6.2	△6.5	△5.4	△16.4	△5.5
	전월(C/B)	△6.1	△8.1	△6.9	△5.8	0.5	△5.1	△4.2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그림 4]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6,455	6,281	3,324	3,824	3,629	4,550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7월	5,551	5,053	2,050	3,158	2,898	4,266
	8월	5,511	4,801	1,630	3,217	2,776	4,210
	9월	5,621	5,317	2,400	3,147	2,859	4,251
	10월(A)	5,538	4,944	2,001	3,045	2,686	3,904
	11월	5,391	5,016	1,553	3,018	2,329	3,429
	12월	4,782	4,113	1,310	2,506	1,988	3,035
2023	1월	4,473	3,526	1,224	2,582	1,951	2,819
	2월	4,487	3,781	1,210	2,727	2,042	2,786
	3월	4,702	3,884	-	2,612	2,182	3,195
	4월	4,651	3,762	-	2,688	2,381	3,571
	5월	4,383	3,603	1,390	2,639	2,129	3,436
	6월	4,425	3,671	1,760	2,541	2,150	3,519
	7월	4,376	2,996	1,703	2,885	2,250	3,594
	8월	4,586	3,517	1,911	3,010	2,255	3,535
	9월(B)	4,937	3,471	2,240	3,273	2,486	3,898
	10월(C)	5,204	3,847	1,900	3,206	2,354	3,672
증감율	전년동월(C/A)	△6.0	△22.2	△5.0	5.3	△12.4	△5.9
	전월(C/B)	5.4	10.8	△15.2	△2.0	△5.3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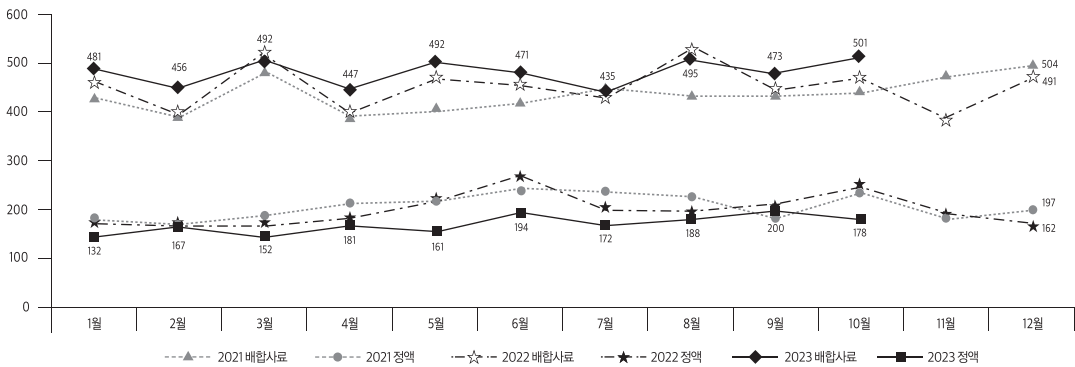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 2023년 10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10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501천 톤(당해년도 누적 4,733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 누적 생산량(4,661천 톤) 대비 1.54%(72천 톤) 증가
- 10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78천 str(당해년도 누적 1,725천 str)로 전년 동기간 누적 판매량(1,943천 str) 대비 11.22%(218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529	458	478	409	491	5,561
	2023	481	446	492	447	492	471	435	495	473	501			4,661
정액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92	202	220	176	162	2,281
	2023	132	167	152	181	161	194	172	188	200	178			1,725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2023년 10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10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9,393톤으로 전년 동월 3만 6,159톤 대비 8.9% (3,234톤) 증가, 전월 3만 1,499톤 대비 25.1%(7,984톤) 증가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25.7%(6,096톤) 증가, 냉장 쇠고기 23.1%(1,798톤)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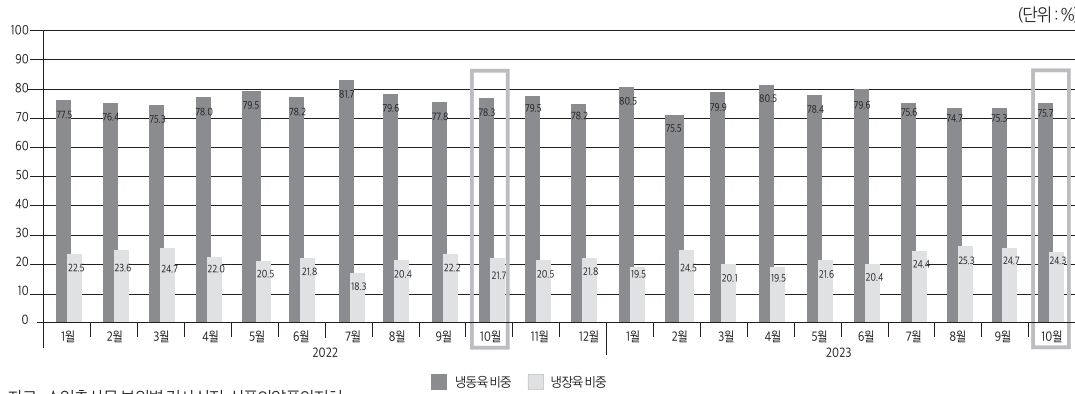
(단위:톤,%)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8월	42,067	33,486	8,581	14,041	6,418	4,681	4,186	12,741	21,558	16,452	4,057
	9월	44,062	34,293	9,769	15,137	5,904	5,168	4,172	13,681	23,894	16,036	4,132
	10월	36,159	28,305	7,854	13,245	5,218	4,209	2,975	10,512	19,297	14,391	2,471
	11월	36,726	29,203	7,523	14,530	6,356	4,323	3,339	8,178	22,093	11,302	3,331
	12월	42,367	33,141	9,226	15,533	7,474	5,079	3,118	11,163	25,504	15,513	1,350
2023	누계	476,754	373,723	103,031	175,626	84,215	54,241	41,152	121,520	265,464	162,084	49,206
	1월	35,649	28,695	6,955	11,685	5,608	5,619	3,197	9,540	17,022	14,187	4,440
	2월	35,118	26,500	8,618	13,171	5,511	5,129	2,806	8,501	21,270	10,317	3,531
	3월	43,632	34,874	8,758	15,822	6,523	5,944	3,958	11,385	23,952	15,077	4,603
	4월	41,615	33,514	8,101	13,263	6,438	5,909	4,073	11,932	20,291	17,999	3,325
	5월	44,373	34,783	9,590	13,788	5,896	7,086	4,815	12,788	23,587	16,984	3,802
	6월	39,076	31,120	7,956	11,771	4,719	5,193	4,695	12,698	19,504	15,863	3,709
	7월	36,507	27,601	8,906	12,098	3,690	4,848	4,697	11,174	19,314	15,402	1,791
	8월	37,652	28,137	9,515	12,563	3,705	4,806	5,576	11,002	19,155	16,723	1,774
	9월	31,499	23,721	7,778	11,196	3,931	2,978	4,113	9,281	15,598	13,647	2,254
	10월	39,393	29,817	9,576	12,721	5,766	3,931	5,316	11,659	16,958	20,338	2,097
	누계	384,514	298,762	85,753	128,078	51,787	51,443	43,246	109,960	196,651	156,537	31,326
증감률	전년동월	8.9	5.3	21.9	△4.0	10.5	△6.6	78.7	10.9	△12.1	41.3	△15.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 10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등심 78.7%(2,341톤), 기타 10.9%(1,147톤), 양지 10.5%(548톤) 증가, 앞다리 6.6%(278톤), 갈비 4.0%(524톤) 감소
- 10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호주산이 49.0%(6,691톤), 미국산 8.7%(1,360톤) 증가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Con  
sulting BA플러스



## 우수한 송아지 사육을 위해

갓 태어난 시점부터 기본에 충실히 관리  
가급적 빠른 시간에 많은 양 '초유' 급여

태어난 송아지에 적당한 온도 초유 급여  
따뜻한 환경 제공...폐사율 낮추는데 중요



어미 소로부터 생시 체중이 크고 우수한 송아지가 태어났다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송아지를 잘 키워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일 것이다.

우선 갓 태어난 시점에 대한 관리부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기본은 바로 초유의 급여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급여해야 할 것이다. 늦어도 6시간 안에 급여하고 여의치 않으면, 냉동초유를 활용하여 적당한 온도로 데워서 급여해야 한다. 여기서 냉동초유량은 1회 급여량 500~1,000ml이며, 온도는 상온 15°C정도(20°C에서 1시간)로 데워서 급여한다.

두 번째는 환경관리이다. 특히 송아지가 추운 계절에 태어났다면 송아지방을 만

들어 따뜻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송아지 환경을 잘 갖춘 농장주와의 인터뷰에서 특징은 송아지 폐사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이다. 한 번쯤 교육자료에 송아지 전용 침대를 만드는 방법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농가들 중에 한 예로 여주지역의 한 농장주는 사람이







단백질 소화에 도움주는 고초균유산균G

거주해도 될 정도로 보온이 되는 컨테이너를 송아지방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별도의 송아지방이든 컨테이너든 좋은 환경을 갖춘다면 송아지 폐사율은 많은 농장에서 낮아질 것이다.

태어난 송아지에 초유를 적당한 온도에 급여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면 폐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일련의 사례를 보면, 사람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가 태어나서 분유를 먹일 때 온

도를 적당하게 맞춰서 먹이고 겨울철 외출 시에는 따뜻한 우주복을 입히기도 한다. 그리고 개선된 병원의 분만 시설이 많아지면서 태어난 아기의 사망률도 급격하게 줄었으며, 6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출생일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른 점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절에 사는 스님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동자승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권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어린 송아지의 단백질 섭취도 많은 연구에 의해 높은 수준의 단백질 함량이 더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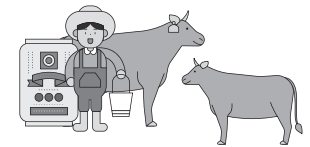
어린 송아지 구간의 CP 함량은 몇 년 전만 해도 17% 이하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0%인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단백질 수준이 높아지면 연변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시 낮은

어린 송아지 때 별도의 물통 관리 실시  
일당 증체량 증가...높은 가격 비육우 성장

출생 후 4주간 물 섭취와 사료 섭취량

물급여	군수	두수	일당증체량
자유	5	34	523
제한	6	56	406
무	2	18	211

출처: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수준의 사료를 선택하는 농가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선택보다는 대응책으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고초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물에 대한 관리이다.

이유 후 어린아이는 물병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섭취량을 늘려간다. 어린 송아지 구간에 별도의 물통이 중요한 점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성장기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래 표의 물의 섭취 방법 및 유무에 따라 사료 섭취량이 45% 증가함으로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많은 부분을 농가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사의 구조상 마지막 별도

의 물관리는 잘 안되는 농가가 많은 상황이다.

남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별도의 물통 관리를 어린 송아지 때 실시하면 일당 증체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높은 가격의 비육우 판매와 귀결될 것이다.



## 전문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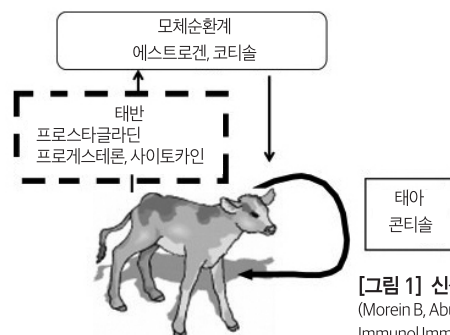
김영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동물병원 수의사

# 철저한 사양관리로 송아지 질병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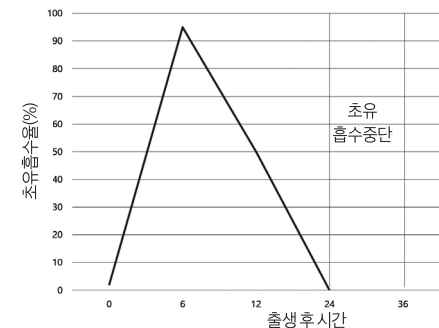
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송아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송아지는 생후 6개월령 매각 시까지 무사히 관리되어야 비로소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는 송아지들의 생애에서 가장 약하고 위험한 시간이다. 특히 3개월령 미만의 송아지에서 설사 및 호흡기질환이 발생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심지어 폐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우 사육의 역사가 유구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되풀이 되고 있다. 질병 진단과 치료는 수의사의 영역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그보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관리를 잘 하는 것이 먼저다.

## 충분한 초유 급여가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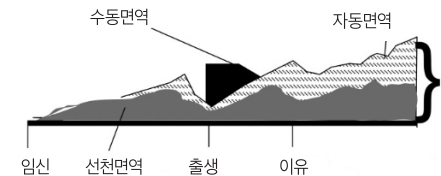
소는 분만이 임박하면서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을 비롯한 호르몬 및 사이토카인(IL-4, IL-10) 등의 다양한 면역물질이 분비되어 태아 및 모체의 세포매개면역(Cell-mediated immunity)을 억압한다. 뿐만 아니라 모체에서는 혈중 에스트로겐(Estrogen)과 코티솔(Cortisol)의 농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신생송아지는 생후 일주일 간 혈중 코티솔 농도는 매우 높다(그림1).



[그림 1] 신생송아지의 면역억압  
(Morein B, Abusugra I, Blomqvist G. Immunity in neonates. Vet Immunol Immunopath 2002;87:207-13 수정인용)



[그림 2] 출생후 시간변화에 따른 초유흡수율 변화



[그림 3] 신생송아지의 면역작용의 발달  
(Chase, Hurley DJ, Reber AJ, et al. Neonatal immune development in the calf and its impact on vaccine response. Vet Clin North Am Food Anim Pract 2008;24:88 수정인용)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솔은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면역억압(Immune suppression)효과도 있어, 생후 1주일 이내의 송아지들은 코티솔의 농도가 높아 면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신생송아지는 혈액 내 감마글로불린( $\gamma$ -globulin)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감마글로불린은 후천성 면역세포의 구성 물질 중 하나로 초유섭취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면역물질이다.

초유 흡수는 송아지의 장관 내 세포에서 이루어지며, 생후 6-12시간까지 활성화되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4-48시간 후에는 불가능해 진다(그림2).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생후 일주일간의 높은 코티솔 농도가 초유 흡수를 증가시켜 초기 면역을 형성하지만, 난산 또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송아지들은 낮은 코티솔 농도로 인해 초유 흡수가 감소되어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초유에 의한 초기 면역은 생후 최소 2-4주간 유효하다 (그림3).

초유 흡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수동면역부전(Failure of passive immunity)이라 한다. 포유현상의 유무만으로 수동면역부전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제 조사결과 수동면역부전

## 성공적인 초유 급여를 위한 주의 사항

- ① 분만 전 어미소의 사료 섭취를 심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 ② 분만 후 6시간 이내에 초유를 급여할 것
- ③ 포유반사가 없는 경우 경구투여기를 사용하여 초유 급여를 할 것
- ④ 난산 또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 급여에 관심을 갖고 개입할 것



전문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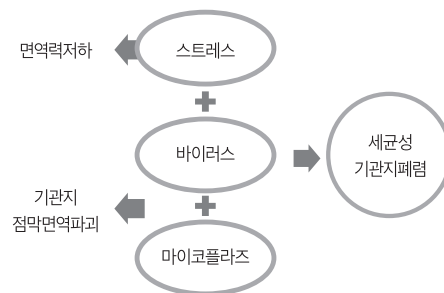
은 31~38%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수동면역부전을 겪는 송아지는 정상 송아지보다 생후 6개월령 이전 폐사율이 2.5~6배나 높다고 한다. 따라서, 올바른 초유공급이 번식 농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어미소의 초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용유와 보충유 제품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면역글로불린(IgG)으로서 150g 이상을 송아지가 섭취하도록 챙길 것을 권한다.

### 호흡기 백신은 조기에 실시

초유를 통한 대부분의 모체 이행항체는 16~28일이 지나면서 점차 약해져 이후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소 호흡기질병(Bovine respiratory disease, BRD)이 그것이다. 소호흡기질병은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억제로 시작하여 바이러스 및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에 연이은 상부호흡기 상재 세균들이 폐로 침입하여 폐렴으로 종결되는 질병이다.(그림4)

송아지 설사(Neonatal calf diarrhea)와 더불어 송아지의 폐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적절한 백신의 사용이다. 호흡기용 백신은 감염성 비기관염(IBR), 소 바이러스성 설사(BVD), 소 호흡기 합포체성 폐렴(BRSV), 그리고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I3)의 사균 및 약독화 백신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부호흡기 상재균이면서 폐조직을 파



[그림 4] 소호흡기질병의 발생기전

### 소의 호흡기 주요 병원성 미생물

#### 1. 바이러스

IBR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BVD (Bovine Viral Diarrhea)  
BRSV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I3 (Parainfluenza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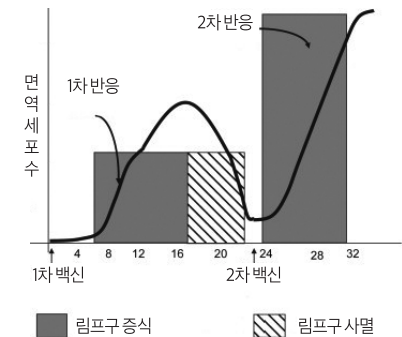
#### 2. 세균

만헤미아 헤모리티카(Mannheimia haemolytica)  
파스츨렐라 멀토시다(Pastuerella multocida)  
히스토필러스 솜니(Histophilus somni)

#### 3. 마이코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보비스(Mycoplasma bovis)

괴하는 만헤미아 헤모리티카(M.haemolytica)와 파스츨렐라 멀토시다(P.multocida) 및 히스토필러스 솜니(H.somni)의 백신유사 제품도 있다. 소 호흡기질병의 발생기전은 바이러스 및 마이코플라즈마가 먼저 감염되어 소 호흡기점막의 면역체를 망가뜨리고, 이후에 상기도에 정상적으로 상재하고 있던 세균들에 의해 2차 감염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감



[그림 5] 백신접종 시기 및 2차백신접종의 중요성

(Morein B, Abusugra I, Blomqvist G. Immunity in neonates. Vet Immunol Immunopath 2002;87:207-13 수정인용)

염 이전에 호흡기질병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농가들은 모체 이행항체로 인해 송아지의 백신 접종시기를 2개월령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항체 역가에 기반한 이전 연구에서 너무 이른 시기의 백신접종은 모체이행항체의 간섭으로 인해 백신 효능이 저해된다고 가정하였지만, 현재 여러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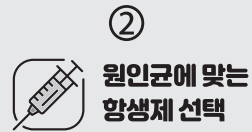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의 60일령 이후에서의 백신접종은 이미 바이러스의 호흡기 점막 내 감염이 이뤄진 상황일 것이다. 결국 60일령이 도래하기 전, 생후 1개월령 전후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백신의 2차 접종이 호흡기 질병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물론 너무 어린 동물에게 과잉 백신접종을 할 경우 도리어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 결여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반응 면역세포의 개체군이 확장되고, 이후 해당 세포사멸로 이루어진다. 면역세포가 죽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좋은 면역반응이다. 이러한 개체군이 확장되고 사멸되는데 3주 이상이 소요된다(그림5). 따라서, 3주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다시 2차 백신접종을 해준다면 면역 기억반응을 증강시켜 준다.

### 항생제 남용은 금물

소 호흡기질병의 치료에 다양한 항생제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균교대 현상의 발생으로 치료를 어렵게 하고 내성균을 키워낼 수 있다. 균교대 현상이란 기존 세균총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다른 세균군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 대개 항생제 남용이 원인이 된다.



항생제 치료 3원칙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소 호흡기질환의 원인체에 대한 항생제의 1차, 2차, 3차 선택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수의사가 현장에서 호흡기 치료를 할 때마다 원인체 분석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송아지의 체온을 기록하여 발열이 있는 송아지가 치료 후 다음 날 체온이 1℃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투약기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항생제는 3일 투여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7일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하루에 전체 송아지의 25% 이상에서 소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10% 이상의 개체가 3일 이상 호흡기 치료를 요할 경우 집단치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집단치료는 해당 축군에 대한 동일 종류의 항생제 투여를 의미하는데, 이는 축군 전체에 동일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간주하여 실시하는 대처 방법이다.

질병관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아무리 치료를 잘하여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초유 급여를 통해 생애 초기 면역을 충분히 형성하여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백신 접종을 통하여 각종 질병 발생을 예방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항생제 투여로 조기에 대처해 준다면 송아지 폐사와 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어서 농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질병관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초유 급여로 생애 초기면역 충분히 형성

적절한 시기에 백신 접종...질병 최소화  
제대로 된 항생제 투여 질병 조기 대처



# 수의칼럼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수의학 박사

## 추운 겨울철 한우 버짐병 발생과 대책

최근 국내 한우농가의 대규모화에 따른 다두 및 밀집 사육에 따른 환경 불량, 면역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송아지 및 육성우에서 링웜(버짐병)이 다발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3~6개월가량 시간이 지나면 햇빛 조사, 영양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으로 사라지는 질병으로 알고 있어 발병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치료를 게을리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소 버짐병, 일명 피부사상균증은 곰팡이성 피부 질환으로 한번 발생하면 9개월까지 지속되기 쉽고, 성장 저하, 발육 부진 등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 농가 소득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신 버짐병

소에 감염되는 곰팡이에 의한 피부병으로 눈, 귀, 미근부위 등의 피부에 털이 부스러지고 비늘이 생기는 소양증이 특징이고 주로 어린 송아지에 많이 발생한다. 또한 추운 겨울철과 겨울을 지나 봄철에 이르는 시기에 다발하는 버짐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파되므로 감염우의 위생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 1 원인

피부진균증(dermatomycosis)은 균류의 일종인 곰팡이(진균)가 털이나 피부의 표피층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서 윤선(링웜 : ring-worm), 버짐 및 도장병이라고도 하며, 소에 피부병을 일으키는 주요 진균에는 3~4종이 있



으며, 트리코피톤Tricophyton verucosum은 90.25%(YH Tartor, 2020)로 일반적인 원인이나, T. mentagrophytes은 9.76%(YH Tartor, 2020), T. equinum, Microsporium gypseum, M. nanum, M. canis.이라는 진균의 감염으로 발생한다. 이 진균의 아포는 모낭의 각질층에 달라붙어 발아하며 털 주위에 아포를 형성하는데, 감염된 털은 약해져 끊어진다.

버짐이 생긴 소가 가려워서 축사벽, 스탠천(stanchon)이나 말뚝 등에 비빈 자리에 건강한 소가 접촉했거나, 진균증에 걸린 소의 피부를 손질한 솔로 건강한 소의 몸을 손질했거나 또는 소가 우사 내에 밀집되어 있어 서로 몸을 비벼댔으로써 감염된다. 또 진균증에 걸린 소에 이가 기생하면 진균증은 빨리 번진다.

## 2 국내외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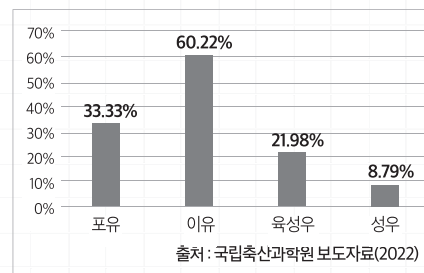
주요 발생 원인은 감염된 가축과 같은

공간에서 사육하거나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감염, 영양소 불균형, 햇빛 또는 환기 부족, 축사 내 습도 증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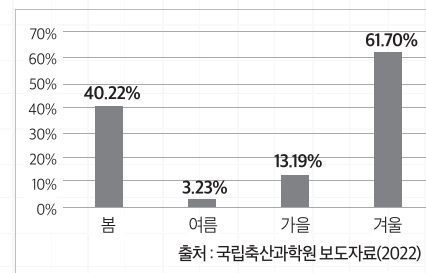
소 버짐병은 젖소에서 17.7~60%의 비율로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송아지에서 감수성이 2살 이하의

육성우에서 50% 이상 발생으로 높으며, 특히 축사에서 장기간 사육하는 겨울과 초봄사이에 집중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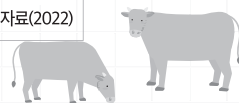
나타나고, 버짐은 겨울동안에 갇힌 소에서 매우 심하며, 봄과 여름에 자연 치유되는 과정을 밟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21~2022년 국내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버짐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육 단계별로 이유기(3~6개월령 미만) 60.2%, 포유기(3개월 미만) 33.3%, 육성우(6~12개월미만) 22.0%, 성우(12개월 이상) 8.8% 순으로 6개월령 이하 송아지에 가장 많이 발병했고 계절별로는 겨울(61.7%)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40.2%), 가을(13.2%), 여름(3.2%)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별 발생시기



계절별 발생시기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 발생율은 이란 57.5%(2011), 파키스탄 1.6%(2017), 토스카나 87.7%(2009), 이탈리아 71.7% (2014)로 나타나 국가 간의 차이는 아마도 소 품종, 생산, 사육 시스템, 농장 내 소의 원산지 및 기후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자별로 보고된 발생율은 11%(J.S. Dalis 등, 2019), 17%(Ahmed Abdel-Rady 등, 2008), 15.35%(Yanan Guo 등, 2020), 55~79%(Yasmine H. Tartor 등, 2020), 12.5%(Walid S Mousa 등, 2018), 20~50%(Ghassan H. Jameel 등, 2015)로 다양하며, 발생 계절로는 겨울 > 가을, 여름 및 봄(Yanan Guo 등, 2020)순이며, 발생 부위로는 안면부 20.43%, 두부 38.71%, 목(경부) 20.43%, 체구 10.75%, 전신 9.68%(Yanan Guo 등, 2020)로 나타나고, 발생연령은 4~6개월령 육성우(60%)>1개월령 이하(41%)(Yasmine H. Tartor 등, 2020)로 나타난다.

## 3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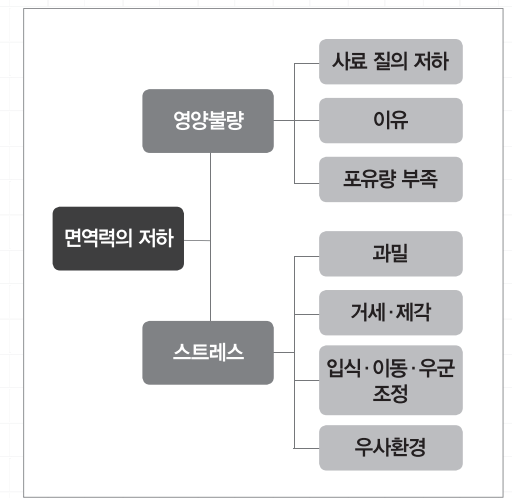
주로 2~8개월령의 송아지에 다발하나, 간혹 성우에서도 나타나며, 일년내내 발생하나, 가을과 겨울에 사육되는 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잠복기는 1~4주이다. 장마철은 원인균(곰팡이)의 증식에 매우 좋은 조건이므로 다발하며, 우사 내에 습기가 많거나 환기불량, 밀사, 위생상태 불량, 불규칙적인 소독 실시, 운동부족 등은 발생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사양환경의 열악이나 영양부족인 노령우나 어린 송아지에서 소의 저항력과 관계가 있는 이유로 많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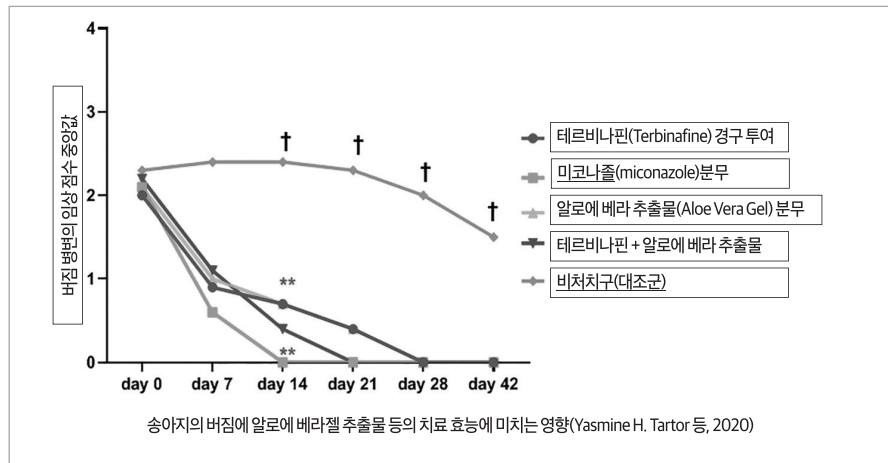
## 4 증상

버짐병이 생기면 얼굴, 목, 꼬리 등 피부에 여러 개의 작은 원형 모양으로 털이 빠지고 비늘이 생기기 시작하고 증상이 심해질수록 원형이

커지며 피부 중심 부위에 부스럼 딱지가 앉으며 가려움증 때문에 소가 벽이나 울타리에 등을 긁는 행동을 보인다. 버짐병은 접촉으로 인해 전염되므로 감염된 소를 발견하면, 즉시 다른 소와 분리하고 치료 뒤 완치될 때까지 건강한 소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초기에는 피부에 작은 증식성반점이 생기다가 후에 여러 모양의 둥글게 털이 부서지고 비늘의 형성과 함께 피부표면에 각화층이 생긴다. 진균은 감염 후 14~30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활동을 개시하는데, 진균이 감염된 곳의 털이 빠지고, 감염 후 2~3개월이 지나면 두꺼운 가피가 형성되며, 발생된 버짐은 직경이 1~1.5인치(2.5~3.8cm)크기로 원형의 병변을 형성한다.



소 버짐 발생 유(원)인



#### 소 버짐 다발 농장의 특징

구분	A농장	B농장
다발 시기	이유기	육성기
추정원인	단계적으로 이유를 하지 않음	건초 질이 안 좋거나 사료 급여량 적음
	이유와 동일시기에 이동	과밀 사육
	스타터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어미소에 사료를 급여	우군의 재편성이 빈번함
사양관리의 영향	이유기의 체중감소 및 발육불량	난소 정지가 많거나 털 상태가 불량하고 하복부가 처져 있음

감염된 진균이 털과 피부에 붙어 증식하고 털구멍(모공)으로 진입해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탈모증과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피부진균증이 잘 발생하는 부위는 머리, 목, 골반부 등으로, 머리에서는 특히 눈 언저리, 코, 귀 주위 등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버짐은 1개씩 독립되어 있다.

#### 5 치료

병에 걸리면 격리하고, 환부의 피부를 빗이나 솔로 긁어낸 후 유황 연고 450g+클로트리마졸 분말이나 연고 20g, 강옥도나 살리실산을 알코올에 약 1:1 비율로 나을 때까지 2~3일 간격으로 발라주거나, 데폰지트 0.5% 용액(=데폰지트 10g+미지근한 물 2L 비율)를 발라준다. 0.5% 양젯물(가성소다)액을 1주 간격으로 2회 피부에 뿌려주면 좋다. 차아염소산나트륨(상품명 : 코락스 : Colax, 하라솔 : Halasol)을 술에 묻혀 문지른 후 3% 옥도정기를 바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황 20, 옥도 80의 비율로 혼합한 유황옥도연고를 발라주거나 곰팡이 치료제인 마이코피트(Mycofeete)나 엑티마(Ectimar) 등을 1주 간격으로 3~4 회 정도 전신에 뿌려주기도 한다.

경구용 곰팡이 치료제인 홀비신과립을 체중 50kg당 1일 5g을 1~2회에 나누어 1~2주간 경구투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2% 요오드요액의 국소적용, 3.75% thiabendazole 연고(글리세린 첨가), 식초액

(물과 동량 희석 후 사용) 및 5% 석회유황합제나 운동선수들의 발에 사용하는 곰팡이방지제(fungicide) 크림 등을 적용하면 양호한 치료경과를 취할 수가 있다. 과망간칼륨(potassium permanganate)의 1: 5,000이나 승홍(mercury perchloride)의 1:2,000의 국소적용도 도움이 된다. 기타 양아욱, 서양박하, 차나무, 박하 등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6 예방관리

소 버짐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 안팎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울타리나 벽 등을 말끔히 청소하고 소독해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아야 한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방한 커튼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낮 시간대에는 방한 커튼을 걷어 소가 햇빛을 쬌 수 있게 하고, 적절한 환기로 축사가 습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버짐병이 자주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송아지를 어미와 격리해 별도 공간에서 사육하고 비타민A, D, E와 무기질을 충분히 먹이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기적인 축사 내외부의 소독을 실시하거나, 하라솔(Halasol)을 1:4로 희석하여 축사 내에 분무하며, 환축은 다른 소와 분리하여 치료하며, 완치될 때까지는 건강한 소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격리한다. 또한 이들 질병에 오염된 축사나 기구는 2.5~5.0% 석탄산액, 1% 가성소다액, 4% 포름알데하이드 용액이나 표백제 용액(표백제 1gallon=약 3.8리터 : 물 3 gallon=11.4리터의 비율로 혼합)으로 분무한다. 이상과 같이 한우농가들이 버짐병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잘 숙지하여 우사는 청결, 건조, 일광욕 증가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밀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영양공급과 피부의 청결, 비타민 A의 급여나 일조량 부족시 V-D 투여 등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파되므로 감염우의 위생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오염된 우사에는 피부가 약한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환부의 딱지를 제거할 때에는 비듬이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





## 세계의 크리스마스 문화와 음식

겨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날~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지내는 크리스마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행사 중에 하나인 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요?

출처: 연합뉴스, 네이버 블로그 '생활 속 기성 이야기', 'CUFS 라이프'

Merry  
Christmas



### 크리스마스의 유래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로 다들 알고 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왜 하필 12월 25일일까? 성서에는 예수의 탄생 연도나 날짜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 어찌된 것일까? 여기에는 많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12월 25일 성탄절이 고대 로마에서 동지날에 진행되던 축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로마에서는 밤이 긴 날이 끝나고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점으로 농경신과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를 가졌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이 날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됐고, 선물을 주고 받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훗날 성탄절을 그 날로 지정하고 지켜온

12.25 성탄절, 고대 로마 동지날 축제에서 비롯  
영국-캐롤 부르는 문화, 미국은 선물나누며 예배  
노르웨이, 집집마다 빗자루 걸어 악귀 막는 풍습



것이다. 또 다른 설은 로마교회에서는 원래부터 12월 25일을, 동교회에서는 1월 6일을 각각 성탄절로 지켰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후대에 동·서교회가 모두 12월 25일을 지키게 됐다고 하는데, 알메니아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한다.

###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문화

#### 영국

영국은 크리스마스 축제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캐롤을 부르는 것도 영국에서 시작된 것.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 네 번의 주일 기간에 교회나 가정에서는 캐롤을 부르는 문화가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통나무를 벽난로 옆에 두고 가족들이 통나무 위에 앉아 새해를 소망하면서 통나무를 벽난로 속에 넣는 풍습도 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25일은 공휴일이지만 우리와 다르게 대중교통이 모두 쉰다. 상점도 대부분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추운 날을 따뜻하게 보내는 공휴일이다.

#### 호주

호주는 12월 25일이 여름인 나라다. 그래서 호주는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25일 크리스마스와 다음날 26일 박싱데이까지 연휴라고 한다.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휴일이기도 하며 한 여름에 속하기 때문에 관공서나 학교가 이 기간에 1~2주 정도 휴가를 간다. 한국의 설과 같은 의미로 보면 얼마나 큰 연휴인지 짐작이 갈 듯. 호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다. 이 기간에 호주로 여행을 간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미국

미국은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선물을 나누고 예배에 참석한다. 트리를 꾸미거나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 네 번째 주일 기간에 빵이나 쿠키 등을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가대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캐롤을 불러주고 이 기간에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캐롤을 즐긴다. 미국은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소소하고 정답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분위기다.

#### 일본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범신론을 믿고 있고 일본에서 기독교는 불과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은 의미보다 그저 '즐거는 날'로 인식한다. 일본에는 기독교가 소수라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축제이자 다른 나라 못지않게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기타

노르웨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악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마다 빗자루를 숨긴다. 크리스마스이브에 마녀와 악마들이 타고 날아갈 빗자루를 찾으러 다닌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도로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을 볼 수 있다. 12월 16일부터 24일 오전 8시 전에는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없게 통제하는데 이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오전에 예배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서로 책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 이브 날 밤까지 각자 선물받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전통은 '아이슬란드어로 크리스마스 독서 홍수(The Christmas Book Flood)'라고 하며 출판계 연간 매출의 약 80%는 10월부터 12월까지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트리는 1886년 12월 24일  
1949년 美군정이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지정

### 한국의 크리스마스 역사와 문화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1884년 서양의 한 선교사에 의해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트리와 산타클로스는 언제 시작됐을까? 한국의 첫 트리는 188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준 것이 처음이고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는 한국에 산타클로스가 돼 크리스마스의 확산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학생이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명성황후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나 기원 등을 궁금해하고 많이 물었다고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저서에 기록돼 있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 모던 걸과 모던 보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관습이 생기고 관련행사나 장식을 꾸미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는 3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진행되다가 중·일전쟁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행사가 금지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사그라들게 됐지만 광복 이후 미 군정에 의해 1949년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이 됐다.

### 크리스마스 선물도 시대상 반영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릴 적 산타를 대변해 부모님이 주던 선물부터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까지. 크리스마스 풍경이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만큼 크리스마스 선물 역시 변천사를 겪었다.



그 시절 최고의 인기 품목=크리스마스 선물  
쌀·계란 선물부터 e-쿠폰까지 '시대상' 반영

그시절 최고의 인기 품목이 크리스마스 선물 대열에 올랐다. 1950년대에는 밀가루나 쌀, 계란 등 먹을거리가 최고 선물이었다. 먹고살기 어려운데다 물자가 부족한 탓이었다.

1960년대에는 설탕과 비누, 조미료 등이 선물로 인기를 끌었다. 제일제당 설탕, 천광유지 빙크 비누 등이 대표적인 선물이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970년대는 미원 선물세트 같은 생필품이 여전히 인기였지만, 술이나 커피세트 같은 기호품으로 선물의 범위가 넓어졌다. 동서식품의 맥스웰 커피가 등장하면서 선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경제 발전을 이뤘던 1980년대는 선물이 더욱 고급스러워지고 다양해졌다. 넥타이나 스카프, 지갑 등 패션 잡화가 인기 선물로 떠올랐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카세트테이프, 레코드 등 음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게 유행했다. 가수들이 앞다투어 발매했던 캐럴 음반은 홍보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받았다. 당시 유명 개그맨이나 가수의 캐럴 음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를 끌며 수만 장씩 팔려나갔다.

1990년대 들어서는 패션 상품들이 선물의 주류를 이뤘다. 향수, 패션 속옷, 지갑, 넥타이 등 비싸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패션 소품이 인기 품목이었다. 이와 함께 해외 명품 소비가 늘면서 명품 제품을 선물하기도 했고, 개성이 중요해지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상품권이 등장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 꿀, 영지 등 건강식품도 선물로 주목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고급 선물과 할인점 위주의 중저가 실속형 선물로 나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서는 선물의 형태가 간편한 모양새로 바뀌었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전자기기가 보편화하면서 간편하고 실용성이 높은 'e-쿠폰'이 강세를 보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간편하게 주고받기 것이 가능하고,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또 키덜트 열풍과 함께 도넛, 터닝메카드 등 돌풍을 일으킨 만화캐릭터로 완구제품도 크리스마스 시즌의 베스트 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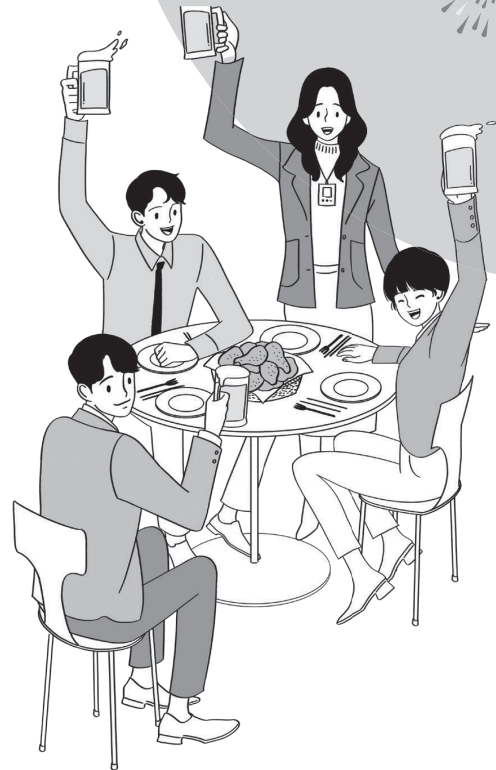
Merry-Christmas



# 건강하게 즐기는 연말연시 술자리 노하우

출처: 헬스경향, 국민건강지식센터 건강칼럼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모임과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음이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주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일 년에 몇 번 일시적으로 폭음하는 것이 건강에 위험할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술자리는 주 1회 이하로 가져야 하고 이 때 알코올 섭취량은 남자 40g, 여자 20g 이내여야 한다. 이를 주류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WHO에서 제시한 적정 알코올 섭취량은 하루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5잔, 맥주 5.5잔, 성인 여성은 소주 2.5잔, 맥주 2.7잔이라고 한다. 이 음주량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알코올에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평소 에 이보다 덜 마시는 사람은 굳이 이 양을 채우려 할 필요는 없다.



## 소주·맥주 저위험 음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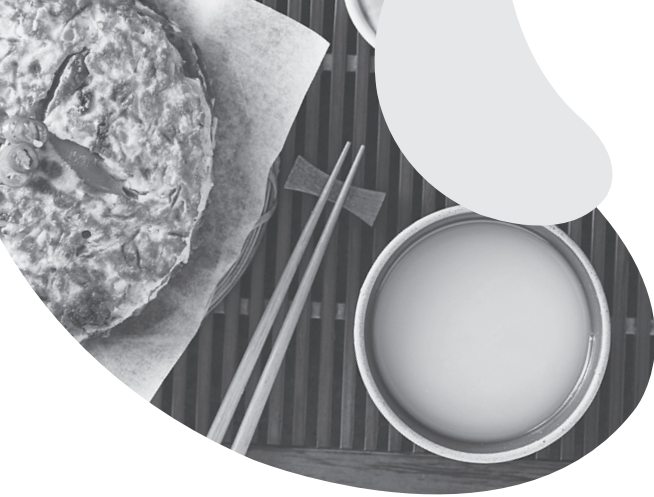
표준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소주 남자 5잔 이내 여자 2.5잔 이내 도수 : 19% 순수알코올 : 약 8g 기준 : 소주잔 (50ml)	맥주 남자 4잔 이내 여자 2잔 이내 도수 : 5% 순수알코올 : 10g 기준 : 맥주잔 (250ml)
소주 남자 4잔 이내 여자 2잔 이내 도수 : 21% 순수알코올 : 8.4g 기준 : 소주잔 (50ml)	캔맥주 남자 3캔 이내 여자 1캔 이내 도수 : 5% 순수알코올 : 13.2g 기준 : 캔 (330ml)
소주 남자 6잔 이내 여자 3잔 이내 도수 : 16% 순수알코올 : 6.4g 기준 : 소주잔 (50ml)	생맥주 남자 2잔 이내 여자 1잔 이내 도수 : 5% 순수알코올 : 20g 기준 : 호프잔 (500ml)

## 음주 전 식사 든든하...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대체로 술자리는 저녁식사 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와 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간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 기에 알코올 분해가 늦어질 뿐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마셔빨리 취하게 된다. 또 술을 마시기 전 알코올 흡수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알코올 분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술자리는 주 1회 이하로 자제  
치즈·고기 등 단백질 안주 추천  
숙취해소 약·음료 맹신은 금물



## 안주, 저지방 고단백 위주로... 짜고 매운 음식 X

술안주는 술의 독한 기운을 없애고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술을 마실 때 안주 먹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단백질은 간이 알코올을 해독할 때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즈·두부·고기·생선 등 저지방고단백음식이나 채소, 과일 등을 먹는 것이 좋다. 고단백 안주는 간세포의 재생을 높이고 알코올 해독기능을 돕는다. 또 위에 오래 머물면서 술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뇌와 신경세포에 도달하는 알코올 양도 자연스레 적어진다. 하지만 짠 안주는 갈증을 일으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하고 매운 안주는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술자리 대화, 많이 할수록 좋아...

노래는 주의해야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면 천천히 마실 수 있고 말을 많이 할수록 몸 밖으로 알코올이 배출되기 때문에 술이 덜 취한다. 또 술 마시는 속도를 늦출수록 뇌세포로 가는 알코올 양이 적어지고 간에서 알코올성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따라서 송년회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면 돈독한 관계뿐 아니라 건강한 음주에도

도움을 준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음주상태에서 노래를 하면 평소보다 소리를 세게 지르는 때가 많다. 이 경우 성대에 무리가 가고 심하면 충혈이 되는 급성후두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음주 중 흡연, 더 빨리 취하게 해... 각종 암 위험도

음주 중 흡연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니코틴이 알코올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 담배까지 피우면 더 빨리 취하게 되고 쉽게 녹초가 된다. 니코틴 외에도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알코올에 용해돼 이미 알코올로 저항력과 암 발생 억제력이 약해진 몸을 공격한다. 특히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간암, 식도암·후두암·구강암 등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음주를 하면서 하루 30개피 정도 흡연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도암 발생위험은 30배, 후두암과 구강암 발생 확률도 10배 이상 높다.



## 숙취해소음료 맹신은 금물...수분 섭취 중요

숙취는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술 깨는 약이나 숙취해소음료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도와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큰 것은 아니다. 이들 제품들은 숙취로 인해 생기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술 깨는 약이나 숙취해소음료의 효과를 맹신하여 술을 많이 마시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알코올 분해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량이 적은 탄수화물·단백질·당분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음주 후 사우나 피해야...해장술은 절대 금물

음주한 날이나 그다음 날 숙취가 심하다며 빨리 깰 목적으로 사우나를 찾아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음주상태 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사우나를 하거나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탈수현상이 생길 수 있다.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일으켜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땀을 무리하게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 후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사우나를 계속하면 탈수현상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저혈압, 부정맥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알코올중독에 가깝다. 해장술을 한다는 것은 알코올로 괴로운 증상을 다시 마취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극을 많이 받은 위장에도 좋을 리 없다. 한 번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2-3일 정도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손상된 간세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장술은 물론이고 술 약속은 지친 간을 쉬게 한 다음으로 잡을 것을 권한다.

## 바람직한 음주습관 10계명

- ①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며, 폭탄주는 금물
- ② 빈속에 마시지 않기
- ③ 천천히 마시기
- ④ 술잔 돌리지 않기
- ⑤ 자신의 주량 지키며, 동료에게 억지로 권하지 않기
- ⑥ 원치 않을 때 거절 의사표현 확실히 하기
- ⑦ 매일 마시지 않기
- ⑧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
- ⑨ 술자리는 1차까지만
- ⑩ 약 복용 시 금주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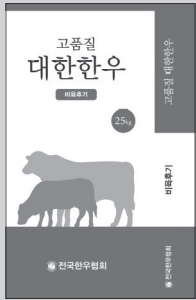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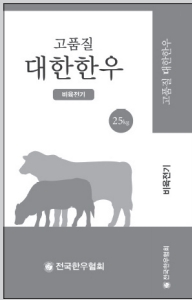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야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편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2.0	자유채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 150	150 ~ 170	170 ~ 190	190 ~ 210	210 ~ 230	230 ~ 250	250 ~ 265	270 ~ 285	290 ~ 305	310 ~ 325	330 ~ 345	350 ~ 365	370 ~ 385	390 ~ 405	410 ~ 425	430 ~ 445	450 ~ 465	470 ~ 485	490 ~ 505	510 ~ 515	520 ~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섭취량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을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어린송아지	20.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를 최적으로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번식우	14.0	2.0	15.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8	1.2	68.0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육성기	15.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0.0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 반추위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전기	13.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3.0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비육후기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합리적 가격/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12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대한한우 어린송아지사료  
2~6개월  
25kg

고품질 대한한우  
번식  
25kg

고품질 대한한우  
육성  
25kg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전기  
25kg

고품질 대한한우  
비육후기  
25kg

어린송아지  
14,575  
벌크(kg/원)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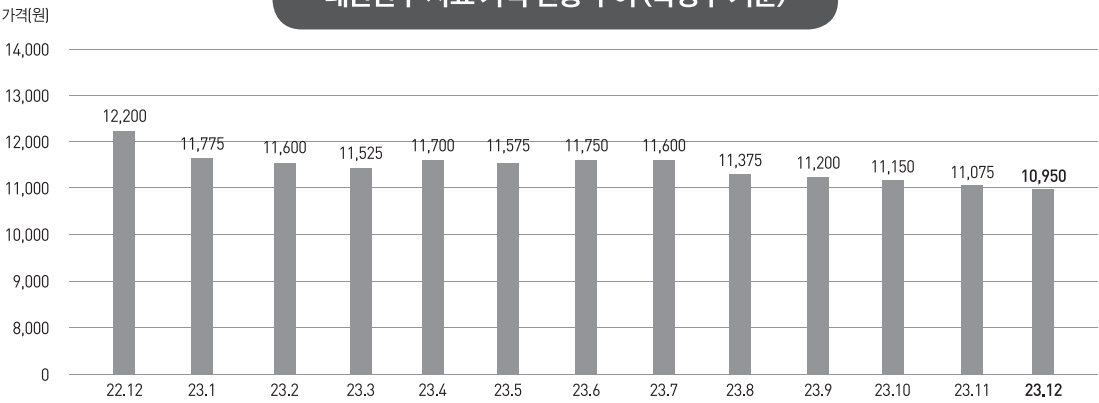
번식우  
10,700  
벌크(kg/원) 412

육성  
10,950  
벌크(kg/원) 421

비육전기  
11,150  
벌크(kg/원) 429

비육후기  
11,250  
벌크(kg/원) 434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육성우 기준)



#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24권 제12호(통권 205호) / 2023년 12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HNCOM    발송 지산포스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http://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빠르고, 오래가는  
호흡기 질병 1차 선택 약!

트랙스 주 톨라스로마이신

TRAXX inj.

- ✓ 속효성 & 지속성 주사제 (단, 1회 주사로 14일동안 효과 지속)
- ✓ 강력하고, 광범위한 항균 효과
- ✓ 적은 용량으로 주사스트레스 감소
- ✓ 축종별 포장단위로 잔여량 절감 (20mL, 50mL 포장단위 출시)
- ✓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대한뉴팜